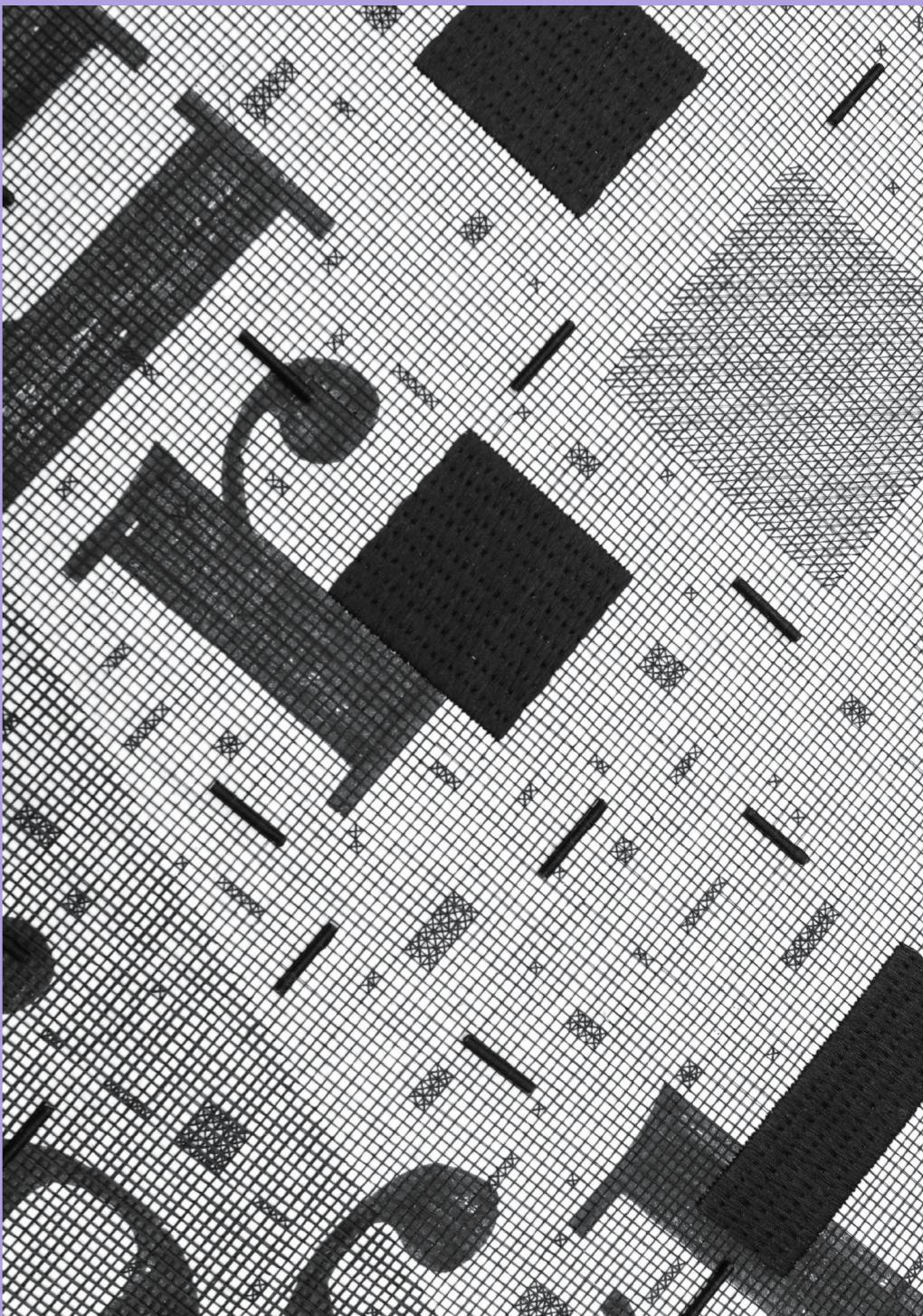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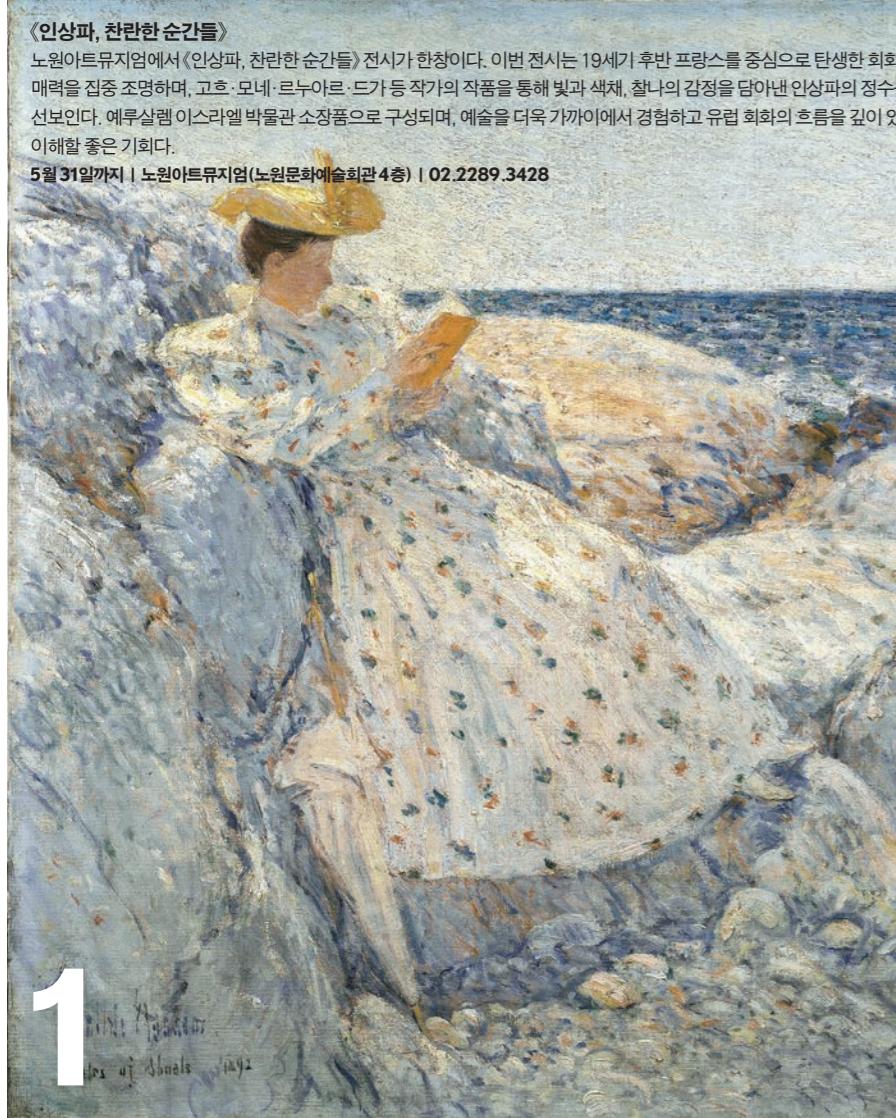


문화
서울

2026.02.28

문화서울





2

**〈원 테이블: 5. 임성남, 바레-에서
발레로〉**
무용가 임성남의 기록을 새롭게 바라보는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고 있다. '원 테이블'은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획형 프로그램으로,
유족이 기탁한 무용가 임성남 컬렉션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선보이는 것. 발레가 일본에
통해 유입되던 시기를 상징하는 '바레'를
제목에 사용해 전환기 임성남의 활동을
기록으로 조명하기를 시도한다.
3월 27일까지 | 아르코예술기록원 본원
열람실(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층)
02.760.4751

ONE TABLE

원 테이블:
5. 임성남,
바레-
(バレエ)
에서
발레로

One Table: 5.
Lim Sung-nam,
From バレエ to Ballet

2025년 12월 10일 -
2026년 3월 27일

© 아르코예술기록원

4

국립극단 창작희곡공모 선정작 낭독공연
국립극단은 '창작희곡공모'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2월 창작희곡공모
선정작 낭독공연을 통해 선정작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무대화 가능성은 시험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는 2025 창작희곡공모에서 선정된 〈모노텔〉(작 이옹훈), 〈옥수수밭
맹별이지〉(작 윤미현), 〈극동아시아 요리 연구〉(작 김정윤)를 낭독 형식으로 처음 관객 앞에
소개한다. 동시대 새로운 작품의 단상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목할 것.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 1644.2003

5

〈행복〉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서툴렀던 부부. 익숙함 속에서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여가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서로를 바라보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행복〉이 옮겨올 두 달간
공연된다. 이선희의 대본은 바탕으로 정서혁이 연출하고
극단 화설표가 공연한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끝내 손을 놓지 않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자.
3월 1일까지 |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
02.2049.4700

2026.01.02 ~ 03.01
행복 | 2부 90분, 0.51 | 관객석, 좌석당 2석
국립극단 창작희곡공모 선정작 낭독공연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
제작: 이선희 | 연출: 정서혁
제작: 이선희, 황민경 | 각본: 이선희 | 제작: 정서혁 | 출연: 이선희, 정서혁 | 조명: 김민경 | 음악: 김민경 | 미술: 김민경 | 의상: 김민경 | 퍼포먼스: 김민경 | 퍼포먼스: 김민경
티켓: 3만 원, 1인 1석 | 예매: 티켓제작 |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티켓제작
© 국립극단

6

신진 예술인 프로필 촬영지원 프로젝트 결과 전시 〈NEXT!〉
신진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 촬영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서울 예술인 활동기반 지원사업의 결과 전시 〈NEXT!〉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참여 예술인의 프로필 사진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과 키워드를 함께 배치하는 아카이브 전시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공연예술계 신진 100명의 얼굴과 이들의 활동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2월 22일까지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1층 | 02.758.2177

7

〈국립국악원 설 공연 〈설 마중 가세〉〉
'붉은 말의 해' 국립국악원 4개 단체가 함께 준비한 설 공연이 열린다. 수제천, 비나리, 민요 연곡, 부채춤, 판굿과 장구춤,
단막 창극 〈심청가〉 중 '활성 가는 길' 대목 등 국립국악원 대표 레퍼토리가 1부 '복을 마중하다'라는 제목 아래 구성되며,
2부 '내일로 달려가는 소리'에서는 국악관현악 '말발굽 소리'와 '누구에게나 친근한 국악 동요가' 올려퍼질 예정. 명절을 맞아
공연장을 찾은 이들을 위해 민속놀이와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 '우연랜드'가 공연장 밖에서 관객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2월 17일 오후 3시 | 국립국악원 예약당 | 02.580.3300

8

© 국립국악원



즐겁다

자신을
소개해보자

(근데 이제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만큼만...)

1. 내 이름은???
2. 나는 어떤 예술가야.
3. 나는 어디에 사나면?
4. MBTI는? 별자리는? 발사이즈는?

청년 예술가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울타리 같은 학교를 나서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예술가 앞에
서울문화재단이 디딤돌을 놓았다.
이들의 첫 번째 무대를 지원하는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비롯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지원사업까지, 청년 예술가의 창창한 기운으로
가득 채운 2월호를 시작한다.

졸업이라는 이름의 계절, 그다음을 묻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시작하며



GRADUATION SEASON, AND WHAT COMES NEXT RINGING UP THE CURTAIN ON SEOUL CONNECT STAGE



졸업은 늘 두 가지 얼굴을 지닌다. 함께 보낸 시간을 떠나 보내는 서운함, 울타리처럼 느껴지던 학교를 벗어난다는 막연한 두려움. 동시에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설렘과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기대도 공존한다. 더욱이 예술 전공자에게 졸업은 단순한 ‘끝’이나 ‘시작’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하다. 학생에서 예술가로, 연습실에서 무대로, 과제에서 작품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바로 이 시기에 놓인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전환의 순간은 제도적으로 가장 비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 예술지원사업 공모는 전년도 가을에 마무리되고, 교내 활동은 경력으로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 졸업과 동시에 예술 현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1~2월, 많은 예비 예술가가 준비가 아닌 공백 속에서 첫발을 내디딘다.

통계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매년 2월,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은 7만 명이 넘지만, 실제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인원은 약 18퍼센트 수준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다수는 재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대 경험 자체를 얻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다. 예술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증명된’ 경력이 요구되지만, 그 경력을 쌓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모순 속에서 많은 청년예술가가 방향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다. 졸업 직후의 예비 청년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해도 괜찮은 무대,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 동료와 함께 떨리고, 선배와 연결되며, 예술 현장의 문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경험. 바로 그 전환의 순간을 제도적으로 받쳐줄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현장으로, ‘첫 무대’를 잇다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 졸업을 앞둔 공연예술 전공자의 학교 밖 전문 공연장에서의 첫 무대를 지원한다.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공연예술 장르 전반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예비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원 시점이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졸업 시즌인 1월 말부터 2월까지 운영된다. 이는 예술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시기를 역으로 활용한 선

Graduation always has two sides. The sadness of leaving behind shared time, and the vague fear of stepping beyond the fence called school.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the excitement of being called by a new name, and the faint yet clear expectation of moving forward somewhere. Moreover, for art majors, graduation is not a mere “end” or “beginning,” as it is also a moment of identity-shifting. The boundary—from student to artist, from practice room to stage, and from assignment to artwork—is precisely placed at this period.

However, this crucial moment of transition is also the most institutionally vacant period. Most arts support program applications close the previous fall, and on-campus activities are hardly recognized as sufficient professional experience. In January and February, when students must enter the art scene at the same time as graduation, many aspiring artists take their first steps from a void, unprepared.

Statistics clearly show this. Every February, among the more than 70,000 graduate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only about 18% actually continue their artistic activities. (“2024 Statistics for Employment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majority leave the field not because of the lack of talent or will, but because they never gained stage experience itself. To enter the art world, “proven” experience is required, yet the opportunity to gain such experiences is denied—a contradiction that leads many young artists astray.

What matters at this point is not mere livelihood support or one-off fundings. What aspiring young artists need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is a stage where it is all right for them to fail, as well as a sense of companionship. An experience in which they can be nervous alongside peers, connect with seniors, and learn firsthand the grammar of the art scene.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at very moment of transition, a mechanism is needed.

Connecting the “First Stage,” From University to the Art Scene
Seoul Connect Stage, promoted by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FAC), is a program born from this

택이다. 공연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연장 대관과 무대기술 전문인력 운영, 연습 공간 이용, 홍보와 아카이빙을 아우르는 성장 패키지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첫 경험을 입체적으로 설계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연결’이다. 고립된 창작이 아니라 동료 예술가와 함께 무대를 만들고, 장르별 선배 예술가와의 멘토링과 이후 공연 리뷰를 통해 현장의 언어를 배운다.

지난 1월 26일 열린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개막식은 재단이 예비 청년 예술가의 첫 번째 동료가 돼 함께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다. 개막식에서 진행된 ‘넥스트 아티스트 27’에서는 27개 선정팀, 총 169명의 예비 예술가가 무대에 올라 각자의 이름과 작업을 소개하고 포부를 나눴다. 무대 위에는 이제 막 학교를 떠나는 이들의 설렘과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진 환영 세레모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우 서울시극단장·윤혜정 서울시무용단장 등 예술계 선배들이 함께해 청년 예술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선배가 끌어주고 서울이 밀어주는 ‘이음의 무대’로서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눴다.

후반부에는 예비 예술가에게 직접 마이크가 전달됐다. 이들은 예술지원 사업의 높은 문턱, 졸업 이후 곧바로 마주하는 활동 기반의 불안정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



awareness. This program supports the very first stage performances of performing arts majors nearing graduation, in a professional performance hall outside of school. Its significance lies in targeting all aspiring young artists seeking to enter the art scene, without limiting itself to specific genres of the performing arts.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e timing of the support. Seoul Connect Stage operates during graduation season, from late January through February. This reversely utilizes a period that was previously overlooked in arts support. In addition to performance fee support, it designs a three-dimensional first experience for artists by offering a growth package encompassing venue rental, professional stage technicians, practice spaces, promotion, and archiving. Another core element is “connection.” Rather than isolated creations, participants create stages alongside fellow artists, while also learning the language of the art scene through mentoring with senior artists across all genres and subsequent performance reviews.

Held on January 26th, the opening ceremony of Seoul Connect Stage clearly showed SFAC’s commitment to becoming the first companion for aspiring young artists and walking alongside them. At the opening ceremony, “Next Artist 27,”



어놓았다. 특히 많은 이들이 지원금보다 더 절실한 것으로 ‘실패해도 되는 무대, 안전한 실험실’을 꼽은 대목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개막식의 환대를 시작으로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의 무대는 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강북에서 각각 연극·무용·전통예술 작품이 차례로 관객과 만난다. 공연 발표가 끝난 뒤에도 청년예술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실무 강의와 네트워킹 자리 등 예술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연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는 작은 떨림이 있다. 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술이라 할 수 있겠냐며 무대로 뛰어든 젊은 예술가들에게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그 첫 떨림을 혼자가 아닌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무대다. 첫 무대는 언제나 서툴고 미완이지만, 그 미완의 시간이 쌓여 예술은 앞으로 나아간다. 졸업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이 또 다른 무대로 이어지기를. 이 겨울의 떨림이 머지않아 새로운 움직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featured a total of 169 aspiring artists from 27 selected teams, taking the stage to introduce their names, works, and aspirations. The stage was filled with the excitement and tension of those just leaving school.

The subsequent welcome ceremony featured senior figures from the art world—including Mayor of Seoul Sehoon Oh, Artistic Director of Seoul Metropolitan Theatre Junwoo Lee, and Artistic Director of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Heajoung Yun—celebrating the young artists’ new beginnings. It reaffirmed the significance of Seoul Connect Stage as a “stage of connection” that is guided by seniors and supported by the city.

In the second half, the microphone was passed directly to the aspiring artists. They candidly revealed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 field, such as the high barriers to entry to arts support programs, as well as the instability of their professional foundation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A particular point, “a stage where it is all right to fail, a safe laboratory,” was cited by many as more important than financial support, which showed why support like Seoul Connect Stage is vital at this period.

Following the welcoming opening ceremony, the performances of Seoul Connect Stage will continue through February 13. Audiences will be greeted with theater, dance, and traditional arts performances at the Seoul Theater Creation Center (STCC), as well as the Seoul Culture & Arts Education Center in Eunpyeong and Gangbuk, respectively. Even after the performances, various programs will be held, such as practical workshops and networking events centered on the Seoul Artists’ Platform_New&Young (SAPY), to help artists’ soft-landing in the art scene.

There is a small tremor that begins in the cold ai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For young artists who leaped onto the stage asking, “How can it be called art if I’m not nervous?”, Seoul Connect Stage is where that first tremor is endured “together,” not alone. Although the very first stage is always clumsy and unfinished, the accumulation of those unfinished moments is how art moves forward. May the small resonance that began at the end of graduation lead to another stage. We hope that this winter’s tremor will soon become a new movement.

애증의 대학 시절을 돌아보며 졸업을 앞둔 이들에게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대체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와 동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보수적인 발레 전공인 우리는 그저 그런 ‘예쁜 발레리나’는 거부했다. 쇼트커트에 이상한 옷을 입고 담배를 빼빼 피워댔다.

우리 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창작발표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창작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열정을 불태웠다. (원래 이상한 애들일수록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외부 공연이 금지된 대학에서, 어디로 될지 모르는 에너지를 쏟아낼 거의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한 번은 동기들과 당시 베스트셀러이던 소설『눈먼 자들의 도시』를 작품화하기로 했다. 극 중 사람들이 하얗게 눈이 멀어가는 장면을 밀가루로 표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곧 교수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거, 청소는 누가 하느냐.” (사실 밀가루는 지금도 무대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소품이다. 하지만 무지했던 우리는 교수님들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일부러 못 쓰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고민을 탈의실에서 나누고 있는데 한 선배가다가 와 “그냥 해. 우리는 무대에서 식칼도 들었어.”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힘을 얻은 우리는 리허설 때는 조용히 있다가 공연 무대에서 밀가루를 투척했다. 막이 내려가기도 전에 교수님들의 용성거림이 들렸고, 결국 불려 가 크게 혼났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의기양양하기도 했다.

별거 아닌 에피소드지만 나는 오래 그 기억을 품고 있다. 투쟁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에게 도취한, 20대의 들끓는 에너지를 수렴하는 하나의 사건. 돌이켜 보면 대 어쩌면 그 힘으로 아직도 창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지금은 반항하지 않고 온갖 규칙에 얹매여 있으

니 말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시절, 에너지 넘치던 우리에게 대학이 조금만 더 너그러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품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연결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 공모에 참여해보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

사실 우리 예술교육 시스템에서 대학은 예술계 진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이후의 창작 또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예술가의 선택이 동 대학원 입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때문이다. 대학 외에는 활로가 너무 적은 것이다. 사실 심각한 문제다. 특히 자기 작업인 창작에 있어서는 위계를 형성하는 교수와 학생, 선후배 관계 안에서 제대로 뜻을 펼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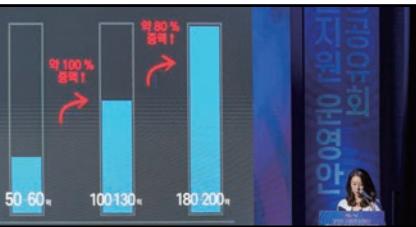
그렇다보니 나를 비롯한 ‘이상한’ 발레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갈 곳이 없었다. 졸업 전 나는 대학에서 배운 것이 다 쓸모없다며 울었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아노미 상태였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진부하고 촌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버리면서 살아왔다. 내 몸에 남아 있는 발레 근육까지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를 외쳤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가리는 부조리와 억압만 생각났다. 좋은 부분을 남길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됐다면 달랐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엄밀하게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경험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애써 돌아보기만 한다면 모든 경험에 견질 것이 있다. 내가 인제 와 발레를 돌아본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가끔 대학 창작발표회에서 선보인 우리의 작품을 생각해본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다만 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너무 멀리 왔고, 함께한 대학 동기들과는 뿔뿔이 흩어졌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대학이라는 굴레 속에서 갑자기 둑인 인연이었을 뿐 각자의 길은 또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때 서로가 주고받은 에너지는 인생에 다시는 없을 큰 정동 情動이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졸업 예정자들이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열정을 불태우시라 권하고 싶다. 거기서 답을 찾아보고, 안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된다. 단지 쉽게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청년 예술가를 위한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 예술창작활동지원(A트랙)



introduction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해 예술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금 최대 2,500만 원

recommend ① 첫 발표 후 5년 이내에 예술 활동을 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② 예술계에 진입해 해당 분야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는 범위의 예술인(단체) ③ 본인의 예술 활동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의 예술인(단체)

schedule 1월 16일 2026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하반기 중 2027년 사업 참여자 모집 예정

comment “예술창작활동지원을 통해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고, 예술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작자로서 실험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contact scas.kr | @sfac_artsupport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introduction 청년 창작자 1인당 9백만 원 창작 활동비 지원 예정

recommend 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 창작 예술가 개인(작가·극작가·연출가·안무가·작곡가·지휘자·평론가) 등 예정

schedule 연내 공지 예정

★ 서울커넥트스테이지

- ★ 창작
- 향유
- ◆ 창업
- 교육·연구
- ▲ 네트워킹·교류
- ♣ 기타



introduction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라는 현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예비 청년 예술가의 첫 공연 발표를 지원

recommend 대학 졸업 후 예술 현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 예술가

schedule 2026년 선정 완료, 1월 26일 개막식,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연

contact 02.326.9745 | @sfac2004

★ 예술창작활동지원(문화) 첫 책 발간지원



introduction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한 능력이 있는 작가, 집필이 완료된 원고를 발간할 수 있는 작가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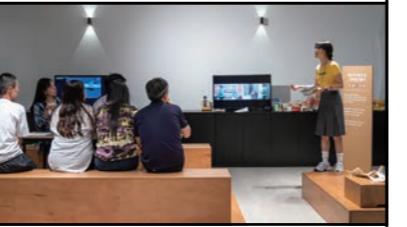
recommend 원고가 준비돼 있고 개인 창작집 발표 능력이 없는 작가

schedule 2월 중 2026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예정, 하반기 중 2027년 사업 참여자 모집 예정

comment “책 한 권을 출간하기까지 요구되는 용기를 내는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업”

contact scas.kr | @sfac_artsupport

▲ SAPY WEEK



introduction 청년 예술인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recommend 진입/초기 활동 단계 청년 예술가

schedule 3~12월 프로그램 진행 예정

contact 02.362.9747 | @sfac_sapy

★ 청년예술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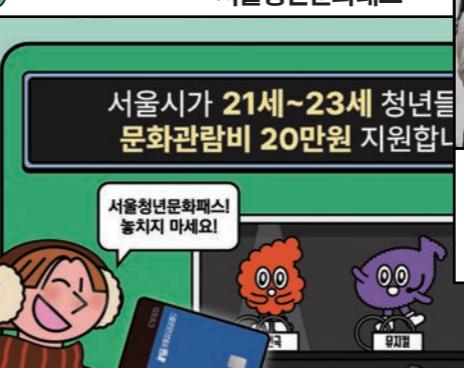
introduction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 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 최대 1천만 원 및 작품 개발·교육·네트워킹 등 지원

recommend ‘데뷔 첫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단체)

schedule 2월 중 2026년 공모 선정자 발표, 하반기 중 2027년 사업 참여자 모집 예정

contact 02.362.9747 | @sfac_sapy

▲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시가 21세~23세 청년들 문화관람비 20만원 지원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놓치지 마세요!

뮤지컬·연극,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문화생활은 놓칠 수 없는 서울 거주 청년 또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의 작품이 있지만 관람료가 부담돼 시도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

상시 모집 및 2027년 3월까지 카드 사용 가능

“서울청년문화패스 덕분에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 관람도 하고, 가고 싶던 전시도 가는 등 풍성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공연의 재미를 알아보려서 앞으로도 종종 보러 다니려고 합니다. ‘다음 공연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는 20만 원 언제 다 쓰나며 걱정했는데, 어느새 벌써 다 쓴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contact 1533.3427 | @youthcultureseoul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introduction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청년이 국제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예정

schedule 2026년 상반기 예정



◆ 예술플러스창업

introduction 청년 예술인의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창업 교육 및 준비 과정을 지원

recommend 예술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 및 기획자

schedule 2026년 하반기 예정

contact 02.362.9743 | @sfac_sapy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STEP-UP



introduction 역량 강화 특강, 워크숍 등 동시대 창작 이슈 및 현장 실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recommend 진입/초기 활동 단계 청년 예술인

schedule 3~12월 프로그램 진행

“연구모임은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던 저를 바로 세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contact 02.362.9747 | @sfac_sapy

▲ 전시《NEXTI》



introduction 신진 공연예술인(활동 경력 10년 이내)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완성된 사진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내 전시를 열어 예술가로서 발돋움 하도록 지원

recommend 예비/진입/초기 예술인 중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예술로 자브로)를 활용해 자기 홍보를 하고 싶은 예술인

schedule 2월 20일까지 전시 진행

“오늘의 기록이 앞으로의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악의 경계를 넓혀 더 다양한 무대와 공간에서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contact 02.758.2178 | @sasc_artists

▲ 리스테이지 서울



introduction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연에 필요 한 의상과 소품 등을 대여·위탁할 수 있는 공연물 품 공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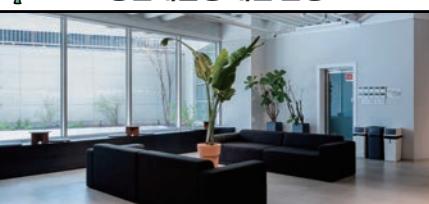
recommend 공연을 앞둔 모든 예술인

schedule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다양한 공연 물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인의 제작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연 소품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비용 절감과 함께 자원 재사용으로 환경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contact 02.758.1677 | restageseoul.or.kr

◆ 청년예술청 대관 운영



introduction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기획·창작·발표·향유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recommend 예술 활동의 준비, 창작 및 발표를 위해 공간을 찾고 있는 청년 예술가

schedule 연간 수시 대관

contact 02.362.9743 | 서울문화재단 통합 대관시스템 | @sfac_sapy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introduction 청년 창작자 1인당 9백만 원 창작 활동비 지원 예정

recommend 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 창작 예술가 개인(작가·극작가·연출가·안무가·작곡가·지휘자·평론가) 등 예정

schedule 연내 공지 예정

contact scas.kr | @sfac_artsupport

막이 오르기 전, 예술가와 예술가의 대화

데뷔의 문턱에서 춤의 무게를 묻다 무용가 전보람& 살사 프로젝트

정리 전보람 무용가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과 그 시간을 지나온 전보람이 마주 앉았다. 첫 작품 발표를 앞둔 이들의 얼굴에는 설렘보다 오히려 차분한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데뷔’라는 문턱에서 낭만과 불안을 함께 체감한 시간.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가 시작된다.

전보람 오늘 이 자리는 졸업과 동시에 데뷔를 앞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청년예술청에서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니 뜻깊네요. 먼저 무용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각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정강한 저는 시작이 남들보다 꽤 늦은 편이었어요. <댄싱9> 프로그램을 보며 막연히 현대무용을 동경했죠. 그러나 우연히 최고종 무용수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춤을 잘 추는 것을 넘어 무용수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게 되었거든요. 늦은 만큼 더 절실히 준비했고, 군대 문제를 해결한 후 입시를 거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하게 되었습니다.

김평온 저는 고등학교 때 스트리트댄스를 접하고 현대무용으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저 역시 <댄싱9>의 김설진 님을 비롯해 많은 선배 무용수의 작업을 보며 제가 진짜 추고 싶은 춤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졌죠. 사실 실용무용으로 진학하려다가 거의 막판에 현대무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와서 강한 형도 만났네요. 요즘에 제임스 티에리의 작업을 접하며 ‘움직임’과 ‘춤’의 경계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꼭 춤이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몸이 내뱉는 표현이 어떻게 예술

적 언어로 변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졌어요.

전보람 안무를 직접 해 보니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정강한 안무하면서 오히려 춤에 대한 혼란이 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춤을 출 때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표현하고 ‘춤추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고, 그 에너지를 무대에서 그대로 쏟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무를 접하다보니 이게 정말 관객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되묻게 되더군요. 지금은 그 ‘완급 조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최대 숙제는 ‘덜어남’이에요. 무엇을 더 채우기보다, 핵심만 남기고 비워내는 것이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김평온 저도 여러 장르의 춤을 접하며 춤과 안무의 상관관계를 어렵잖이 깨닫게 되었어요. 움직임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 움직임을 나열한다고 해서 다 춤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리 역동적인 동작이어도 반복되면 단조로워지는 순간이 와요. 저도 모르게 자꾸 화려한 동작을 찾게 되는데, 작업 전체 흐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하고 관객이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게 할 것인가가 제 화두입니다. 무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싶어서, 관객이 지루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표현을 키우기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전보람 졸업과 첫 발표를 앞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강한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과연 무용을 계속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거창한 ‘선언’처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무용을 계속하기 위한 단단한 출발점이었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저 자신이 조금 더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김평온 형의 말에 공감해요. 불안은 늘 따라다니죠. 하지만 지금까지 무용을 해오면서 느낀 건, 사소한 경험에서 ‘아, 좀 더 해 봐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 발표에 대해 대단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관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현대무용이 난해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지금 흥미를 느끼는 움직임과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전보람 스스로를 ‘예술가’로 받아들이는 감각은 어떤가요?

정강한 사실 ‘예술가’라는 단어가 아직 저에게는 너무 과분하고 모호해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예술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부르는 게 좀 거북하다랄까요. 예술에 대한 저의 개념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김평온 저도 비슷해요. ‘예술가’는 무언가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대가에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예술가라는 정의를 내리기엔 아직 제가 만들고 싶은 예술조차 선명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춤을 추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통통 튀는 대담함을 드러내기보다 지속성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 그 태도는 ‘젠지GenZ 세대’에 대한 나의 피상적인 기대를 되돌아보게 했고, 젊음의 가벼움이 아닌 이 시대 청년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술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전보람 생존과 작업의 지속성 사이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이나 환경은 무엇일까요?

정강한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쓴 시간과 마음을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경험이 결국 제 값어치를 올려준다고 믿어요. 또한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험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아직은 제 현재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김평온 선배들이나 선생님들 보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로또가 답인가’ 할 때도 있죠.(웃음) 농담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작업을 통해 물질적 만족이 없다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속할 힘을 얻기를 바라요.

전보람 그렇다면 불안정한 삶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무용을 계속하게 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정강한 저는 미국 투어 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섯 개 도시를 돌며 공연을 했는데, 그때 ‘무용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이 넓다는 걸 느꼈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쏟아지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벽찬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전보람 그 경험으로부터 국내의 무용을 둘러싼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됐군요.

정강한 맞아요. 한국에서 무용 공연은 여전히 마니아적인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무용을 무조건 쉽게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게 접근하면 무용 고유의 힘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연예술을 더 자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김평온 저도 미국 공연에서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며 꽤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극장은 너무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실용무용이나 클럽 문화처럼 관객이 함께 호응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현대무용에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전보람 그렇다면 관객의 즐거움과 무용의 본질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김평온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객이 웃거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요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좋다 보면 어느 순간 무용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동시에 들어요. 두 가지가 긴장 관계 속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속 가능함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다. 두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가’를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작업을 벼티 수 있는 조건의 문제로 바라본다. 관객의 반응과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은 쉽게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지속이란 더 멀리 가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이 대화를 통해 나는 지속 가능한 예술이란 오래 남는 결과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도록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전보람 이번에 두 분이 함께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

기해주세요.

김평온 이번 작품은 우리가 가진 불안한 상태나 감정을 중심에 두고, 이를 타조알이라는 오브제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타조알은 쉽게 깨질 것 같은 연약함도 있지만, 동시에 부화와 가능성 품고 있잖아요. 이를 활용해 장면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보람 작업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맞춰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평온 아직 ‘이거다’ 하고 딱 정리된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에는 알을 깨는 이미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기는 해요.

정강한 이 작업은 정강한이나 김평온 개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치우친 하나의 메시지나 감정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보람 두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대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공연 준비 힘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기를 바라요.

이들의 데뷔는 완성의 선언이기보다, 앞으로 이어질 문장의 첫 줄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솔직하고 서늘하다. 두 사람은 같은 듯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는 어떤 몸으로, 어떤 속도로 이 세계와 만나야 하는가.

의 방향을 따라 묵묵히 내딛는 걸음 자체가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재하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통해 비나리즘의 음악을 만났습니다. 편안한 선율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치열한 고민이 느껴지더군요. 전통 장르에 존재하는 수많은 창작 음악 중에서도 비나리즘만의 온도가 인상적입니다. 팀 이름을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영호 누군가의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리’에 철학적 체계를 뜻하는 ‘-이즘’을 더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찾게 되는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통음악을 대중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하는 것이 팀의 지향점입니다. 팀의 지속 가능성은 고민하며, 현재는 각자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하 저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대에 서는 독립 예술가와 학생이라는 두 자아가 충돌하는 시기지요. 그런 와중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도전하는 행보는 무척 유의미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하네요.

이영호 초등학교 때 가볍게 시작한 가야금이 어느덧 대학 전공까지 이어졌습니다. 합주하는 즐거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아 음악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진학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졸업한 대학에 남을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할지를 두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 탐색하는 과정이니 작은 선택도 무척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유진 저 역시 같은 시기, 같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어요. 계속 연주자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막막함이랄까요. 다니던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면 익숙한 궤도 안에서 마음 편히 배우며 비나리즘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학교를 선택해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여전히 고민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재하 예술가와 학생의 길을 동시에 걷고 있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성향과 이루고 싶은 방향에 맞춰 고민하면 됩니다. 예술가로서 전체 여정을 두고 보면 일부분일 뿐이고, 어떤 선택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꾸준히 성장하겠다는 지향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예술가들이 무대 뒤에서 마주하는 것은 진로와 생존이라

전통의 뿌리를 딛고 예술가로 오롯이 서는 일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 비나리즘

정리 박채림 [문화+서울] 편집팀

선율에 축원의 마음을 담는 앙상블 ‘비나리즘’의 오늘은 매 순간 선택과 고민으로 가득하다. 이제하 연주자는 이들에 정답을 찾는 대신 스스로를 믿으라고 조언한다. 저마다



는 현실적인 선택지들이다 배움의 즐거움과 현장의 치열 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청년 예술가들이 겪는 성장통이 얼마나 밀도 높은지 짐작하게 한다.

이재하 자신의 방향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현재,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영호 무대에 서는 순간, 직관적으로 예술가라고 느껴집니다.

고유진 저는 음악을 더 잘하고 싶어 연구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이 스스로를 예술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2월에 열리는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무대를 앞둔 지금의 순간 까지도요.

이재하 동의해요. 사실 예술을 하는 누구나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업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하며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지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우리 사회에 예술가에게 부여한 일종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우리의 예술 활동이 그저 나만 즐겁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무대에서의 연주를 보고 누군가의 하루가 바뀔 수 있고, 어떤 음악은 때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내 이익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 저마다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현재의 모든 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마련이니까요.

이영호 오랫동안 곱씹고 싶은 말씀이네요. 사실 이제 시작하는 팀으로서는 이익,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던 참입니다. 이번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공모도 무척 절실히 여겨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재하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또 직접 심사에도 참여하면서, 결국 기본적인 가치들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팀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충분히 매력을 주는지부터 서류의 들여쓰기, 맞춤법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말이죠. 특히 첫 선정 사업의 경우, 주최 측은 새로 선정된 팀이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지속할 의지가 보이는지 서류를 꼼꼼히 살피게 되더라고요. 공모에 도전하는 젊은 팀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단계부터 충실히 신경쓰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고유진 대중이 아닌 심사자의 관점에서 저희의 음악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 고민도 컷어요.

이재하 비나리즘은 추구하는 방향이 느껴지는 팀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려면, 곡을 꾸준히 개작하며 연주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악 자체가 듣기 편안한 스타일인 만큼, 연주는 팽팽한 긴장감을 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복잡한 주법이나 화성을 활용해서 '음악은 편안하게 연주는 예사롭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팀의 행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나리즘 팀이 아닌 개인으로서 각자의 계획도 궁금해요.

고유진 비나리즘 활동을 이어가며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충분히 펼쳐보고 싶어요. 현대적이고 난해한 음악보다는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가야금의 매력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민속악적인 색채를 녹여내면서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창작을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합주하는 과정 자체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영호 지금은 비나리즘 외에 다른 실내악단에서도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직접 공연 기획부터 연출까지 맡아봤는데, 한번 해 보니 여전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조명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더 공부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기획서를 쓸 때 이런 디테일이 큰 힘이 될 것 같아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꾸준히 채워가려 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응시하는 이들의 시선은 막연한 불안에 고여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뻗어 나간다. 누군가는 기획의 디테일을 채우고, 누군가는 전통음악의 문턱을 낮추는 교육자로서의 내일을 꿈꾼다. 이렇듯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리는 과정은, 결국 '비나리즘'이라는 팀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이재하 두 분의 먼 훗날 꿈도 궁금하네요.

고유진 저는 배우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기에,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가야금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피아노처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도 비나리즘이 함께 하길 바라고요.

이재하 팀을 지속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 팀을 거치며 깨달은 사실이죠. 팀이 오래가려면 그팀

이 수익을 통해 내 삶을 지탱해주거나, 혹은 팀과 상관없이 내 삶이 이미 충분히 안정돼야 해요. 당부하고 싶은 건, 팀이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나'라는 개인이 먼저 단단히 서야 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리잡은 음악인이 됐을 때 팀도 비로소 더 건강하게 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이영호] 앞날을 알 수 없다 보니, 제가 언제 어디에 존재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재하]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시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 가겠지요. 졸업 후 사회로 나가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인연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공연은 결코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에 순간순간의 인연이 무척 소중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상대에 대한 믿음을 지키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음악을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을 거라는 서로를 향한 믿음 말이죠. 후배들과 나누는 오늘의 대화가 저에게도 내일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연주자로서 큰 원동력이 되듯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먼 미래에 또 어떤 대화로 이어질지 문득,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의 안녕을 비는 '비나리'의 마음이 자신들의 앞날 또한 환하게 밝혀주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언젠가 다시 마주할 인연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 이들은 다시 가야금 앞에 앉는다. 비나리즘이 국악의 지평 위에 새롭게 새겨 넣을 음표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연극이라는 불안 속에서 나아가는 법 연출가 이오진& 프로젝트 파일

정리|박채림 [문화+서울] 편집팀

무대 밖의 시간은 러닝타임보다 길고 그래서 더 고단하다. 막이 오르기 전, 각자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여덟 명의 연극과 재학생과 이오진 연출가가 마주 앉았다.

[이오진] 제 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호랑이기운'이라 는 1인 제작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세에 대산대학문학상 화곡 분야에 당선되면서 극작가로 데뷔했어요. 그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다가 30대 접어들며 연출을 시작했죠. 작·연출로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작가로 활동하다 연출가가 된 셈입니다.

[황예슬] 저희는 청주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팀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제가 연출을 맡고 있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해 팀원 대부분이 졸업을 앞둔 3~4학년 학생입니다. 연출님에 대해서는 <콜타임> 작업에 참여하신 장호 디자이너님의 특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이 독특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작가로 활동하시다가 연출의 길을 걷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오진] 제가 연출을 시작한 계기는 2017년 연극계에 일어난 미투 운동이었어요. 당시 여성 서사를 다루는 극단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신청해 첫 작품을 선보이게 됐죠. 말씀하신 <콜타임>이 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고요, 현재는 동료들과 함께 혹은 혼자 작업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정희] 지원사업 신청부터 무대를 올리는 전 과정을 혼자도 맡아하고 계시잖아요. 일련의 과정이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이오진] 지원서 작성부터 스태프와 배우 섭외까지 직접 하기 예 형식적으로는 '1인'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막상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들과는 대부분 6년 이상 손발을 맞춰왔어요. 지원서를 낼 때부터 누구와 함께할지 고민해 결정하고, 작품 기획 단계에서 그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의 틀을 먼저 잡아놓은 뒤 협업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배우를 찾는 식이지요. 다만, 공연예술 창작산실처럼 규모가 큰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면 기획 단계부터 프로듀서와 함께 시작하길 추천해요. 예산 관리나 기획 콘셉트 설정, 타깃 선정 단계에서 유능한 프로듀서가 합류하면 공연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김정희]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의 대표 작품이 있긴 하지만, 지방을 돌며 학교폭력 예방 연극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지속하다 보니 연출님 말씀대로 운영 측면이나 관객 연령층에 대한 고민 등, 창작 외적인 시선과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연출가, 배우가 가진 저마다의 고민은 결국 작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방향을 향한다.



활예술 저는 글을 쓰며 연출을 병행하다보니 고민이 많아요. 곧 졸업인데 선배마다 다른 조언을 건네시죠. 연출 전공자로서 졸업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첫발을 떼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오진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 상황이 안정적이거나 어떤 궤도에 오른 듯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여전히 지원서를 쓰고 작품 앞에서 방향을 못 잡아 헤매기도 하는 똑같은 상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연출가로서 다음 스텝을 고민한다면, 한 가지에만 몰두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병행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든 가보세요. 그런 경험을 쌓아 지원서에 녹여내다보면, 그중 하나가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해요. 이것저것 시도하다보니 조금씩 어딘가에 닿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연출은 배우처럼 오디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작업은 기본으로 이어가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 넣으세요. 당장 내일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연출이라는 길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준 현재 연극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오진 트렌드는 사실 저도 참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다만 트렌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직접 '감각'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공모전에 당선되는 작품 혹은 담론이 쏟아지는 작품을 꾸준히 접하면서 스스로 인사이트를 채워가야 하죠. 무엇이 정답인 트렌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조금 과감하게 접근한다면 '내가 곧 트렌드'라는 자신감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본연의 이야기를 하되, 지금 연극신에서 다루는 화두를 한 끗 얹어보는 식이죠.

연극의 수신자는 결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어떤 발신에 응답할지 알 수는 없지만 말 걸기는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일종의 베토는 힘이 필요한 셈이다. 묵묵히 자기 생각과 방식을 전언하다 보면 결국 닿을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다.

서정찬 작품을 쓸 때 창작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오진 영감이라는 건 사실 정해진 규칙 없이 문득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기보다 책을 읽고, 뉴스를 챙겨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자극에 제 자신을 내맡기는 편입니다. 주변의 자극들이 제 안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도록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써야 할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희원 작가와 연출을 겸하면서, 개인적인 창작 세계와 사회적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오진 저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적 흐름과 맞닥뜨리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요. 당장 어떤 사건이 바로 작품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쌓인 서사와 사회적 화두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변의 일들과 저의 내면이 연계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죠.

김정희 연극 위기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예비 예술가들이 스스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회에 나가면 늘 좋은 사람만 마주할 순 없으니까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닥쳐올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오진 어떤 사람은 대체로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별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애정 자체를 버리지는 마세요. '저 사람은 나쁘지만, 다음에 만날 사람은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돌파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잘 해내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본질 외의 부수적인 것들이 자꾸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일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노은솔 졸업 후 배우로서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할지, 일단 오디션을 통해 부딪쳐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무엇보다 선택받아야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작가이자 연출가로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오진 사실 저는 오디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안에서 오디션이 얼마나 효율적인 루트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쪽은 오디션이 활발한 편이지만, 연극계는 제작 환경 제약도 많고 여전히 지인 추천이나 인맥을 통해 작업이 성사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디

션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루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오디션에 도전하고 싶다면 국립극단 시즌단원처럼 규모가 크고 신뢰할 만한 곳을 우선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를 선정할 때 거창한 기준은 없지만, 무대 위에서 인상적이었던 배우를 마음속 데이터처럼 차곡차곡 저장해둡니다. '어떤 공연 어느 장면에서 그분이 왜 좋았는지' 성함과 함께 기억해두는 거죠. 일단 무대 위에서 반하는 게 우선이에요. 비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록 단역일지라도 무대 위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믿는 건 연기를 잘하고 좋은 태도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글을 잘 쓰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작가에게 기회가 오는 것처럼요. 예술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한계에 대해 마음속으로 미리 선을 긋지는 마세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다 보면 결국 진심과 실력이 닿는 지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희원 사삼 졸업을 앞둔 저희가 나누는 대화의 끝은 늘 '불안' 그리고 '막막함'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오진 저 역시 여전히 불안에 관해 글을 쓰고 주변 동료들과 그 감정을 공유합니다. 얼마 전 <히스테리 앤사이언티 춤추는 할머니>라는 연극을 마쳤는데요, 저보다 한참 선배인 배우님들도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불안은 평생 다루며 살아야 하는 당연한 감정 같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레 양치를 하듯 우리 삶에 늘 붙어 있는 존재죠.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이를 다루는 자신만의 요령이나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진 연출은 무엇보다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의 식사를 잘 챙기는 일, 무력함 앞에 서 희망을 선택하는 일, 업습하는 불안과 잘 공존하기 위한 노력까지. 이 모든 당부는 부디 당신들이 잘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

넥스트 아티스트 27 선정 예술가 및 공연 미리보기

올해 서울문화재단이 첫선을 보이는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SEOUL CONNECT STAGE'는 예술대학 졸업예정자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는 창작지원 프로그램이다. 각 사회에 발을 디디는 예비 예술가들이 예술을 향한 떨림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 무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돋는 이음의 가치를 강조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은 74,094명이다. 이 중 개인 창작 활동을 지속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졸업생은 약 14,000명으로, 약 18퍼센트 수준이다. 그만큼 예술가로서 발돋움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기에,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꿈과 현실의 간극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이 생겨났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연극·무용·전통 3개 장르 27개 팀은 16개 대학으로 구성되며, 참여 인원은 169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월과 2월에 걸쳐 준비한 작품을 선보인다. 연극 장르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서울씨어터 101과 서울씨어터 202), 무용 장르는 2월 7일과 8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울무용창작센터), 전통 장르는 2월 6일과 7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예술당솔샘)에서 공연의 막이 오른다. 선정된 예비 예술가들은 발표 무대가 될 공연장과 연습실 외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공연료를 지원받으며, 재단은 통합 홍보와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이들이 예술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함께한다.

부엉왈츠 | 한양대학교

연극

#피자 #2호선 #모험 #1월 29~30일 오후 7시 30분

극단 부엉왈츠는 관객들이 분주한 하루를 뒤로하고 극장의 어둠에 빠져들기를 바라며, 부엉왈츠만의 템포로 달차고 즐겁게 날개와 이야기를 펼치는 청년극 단이다.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간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남녀노소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현실도피자>에서 지하철 역사 내 피자가게 알바생 '기호태'와 기관사 '최산'은 호태의 아버지이자 산의 선배인 기관사 '기현승'의 사고 이후 각자의 지옥에 빠진다. 현실을 부정한 호태는 피자 박스를 끌고 삼아 '돈 기호태'가 되고, 산은 그의 하인 '산 초이'가 된다. 작품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자'와 '현실 역시 한 판의 피자'라는 의미 아래, 토팡처럼 각기 다른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날이 와도 괜찮다고 위로를 건넨다.

수바어게인 | 서울예술대학교

연극

#편의점 #만화 #소비사회와_청년세대 #2월 3~4일 오후 7시 30분

청년기를 통과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30 세대의 감각과 정서를 무대 위에서 탐구하는 극단으로,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들과 그 이면에 축적된 감정과 관계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수퍼 프리미엄 소프트 더블 바닐라 리치>는 일본 연출가 오카다 토시키의 연극으로, 한국 초연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편의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을 통해, 현대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심리 상태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일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가 라시와 우사미는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며 반복되는 노동의 시간을 견뎌낸다. 그러던 중 편의점을 찾는 다양한 인물들로 작은 균열과 트러블이 발생하고,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미즈타니의 과도한 친절은 뜻밖의 실수로 이어진다.

창작집단 하룻밤 | 서울예술대학교

연극

#가족 #치매 #시간 #1월 30일 오후 7시 30분, 31일 오후 3시

느린 시간 속에 살아가는 단체로, '하룻밤', 그 찰나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내일을 마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느린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 아니라, 쌓아온 과거와 현재의 불균형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빠른 사회의 속도에 가려져 잊히거나 외면한 문제를, 창작집단 하룻밤은 오래 머무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허씨의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서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가족'에게 보내는 작은 헌사다. 작품은 치매 노인 허씨와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며 흐른다. 어긋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침묵과 오해, 그리고 끝내 마주하게 되는 진심은 관객으로 하여금 각자의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이 연극은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마주할 용기를 조용히 건넨다.

코끼리귀꼴력 | 중앙대학교

연극

#상상력 #우당탕탕 #듀카티가족 #2월 6일 오후 7시 30분, 7일 오후 3시

모두가 코끼리의 '코'를 주목할 때, 그 옆에서 묵묵히 훌드리는 커다란 '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창작 집단이다. 같은 배움터에서 시작한 코끼리귀꼴력은 출업과 현장 진입과 같은 전환기의 질문들을 연극이라는 유쾌한 실험을 통해 변주한다. 또한 연습을 단순히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 서로의 상상이 충돌하고 확장되는 하나의 놀이로 여긴다. <묘안의 몬스터>는 데이비드 그레이그 David Greig의 'The Monster in Hall'을 번역한 작품이다. 'hall'을 심리적 공간으로 재해석해 기호 'ㅁ'으로 치환하며,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두려움과 미주하는 장소로 그린다. 다발성경화증을 앓는 아버지 '휴'와 열여섯 살 소녀 '덕'은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앞두고 위기에 놓인다. 덕은 아빠와 계속 살기 위해 완벽한 하루를 꾸미지만, 낯선 인물들의 등장은 계획을 훈든다.

와락 | 서경대학교

연극

#유희 #름치박치 #행복 #2월 12~13일 오후 7시 30분

'와락'은 '힘껏 끌어안는 모양' 혹은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의미한다. 공연을 통해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고, 망설임 없이 깊이 끌어안아 위로와 유쾌한 에너지를 전하는 것이 창작 집단 와락의 핵심 가치다. 더불어 효율과 속도가 앞서는 시대 속에서 그 중심에서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극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관객과 함께 끌어안고자 한다. <추락>은 노동이 사라지고 유희 능력이 곧 계급이 되는 근미래 가상 도시 SELO를 배경으로 한다. 치열한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비추며, 19세 아이들은 평생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성인식을 치르고 리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확한 박자와 춤을 춘다. 춤은 자아실현이 아닌 생존 의무가 되고, 개성 대신 정답이 요구된다. 몸치 박치인 주인공 '파란'은 '시모'를 만나 처음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며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작품은 유희의 시대에도 여전히 증명과 평가를 요구받는 인간을 조명하며, '추락'의 진짜 의미를 관객에게 묻는다.

유니토피아 | 대진대학교

연극

#사랑 #구멍 #이방기드 #2월 12~13일 오후 7시 30분

'유니토피아'는 '유니콘'과 '유토피아'의 결합어로,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상향과 환상을 무대 위에 실연함으로써 관객이 현실을 뒤흔들게 하는 단체다.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절실하고, 도달할 수 없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미학적으로 탐구한다. <워 아이 XXX>를 시작으로 다양한 희곡을 재구성하고 창작해 현시대를 반영하는 연극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텍스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연극적 언어와 공간에 관한 탐구를 통해 다양한 무대 요소를 활용한 감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업을 이어 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관객이 연극으로 세상을 감각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워 아이 XXX>는 중국을 대표하는 연출가 명징후이 孟京輝의 원작을 바탕으로, 당시 중국 젊은이들의 발랄함과 진지한 열망을 한국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새롭게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구멍을 따라 개인의 기억과 말해지지 못한 감정들이 무대로 소환된다.

프로젝트 파일 | 청주대학교

연극

#휴머노이드 #정체성 #인간 #2월 7~8일 오후 3시

이들은 '파동이 이는 날'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장르와 형식, 정서를 하나로 엮어 실험하고 도전하는 창작 집단이다. 예술을 통해 시대가 품은 모순을 마주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침묵과 감정을 깨우고자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파일은 각자의 파동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태어나 이토록 바란 적>은 2026년을 배경으로, 한편에선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의 탄생 소식이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기후 난민이 된 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이러니한 풍경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변화와 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편리함을 향해 가속하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은 반복되고, 또 다른 기술이 문제를 덮는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사라진 자연과 휴머노이드 A-0428의 존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작품은 선택과 욕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문한다.

새집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

#두꺼비 #기대와_허상 #선택의_길 #2월 7일 오후 4시

일상 속 익숙한 말과 장면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볍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무용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동요, 놀이, 반복되는 몸의 습관 등 누구나 공유하는 감각에서 출발해, 기대와 어긋남, 관계의 균열과 선택의 순간을 움직임과 오브제를 통해 탐구한다. 과도한 해석보다 관객의 경험과 감정에 닿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며, 소수의 무용수와 단순한 무대 장치를 통해 명확한 콘셉트와 서사를 구현하는 작업을 지향한다. <현집 줄게, 새집 다오>는 고전 동요 '두껍아 두껍아'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쉽게 건넨 "현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두꺼비에게 불확실한 약속으로 다가온다. 작품은 억울하면서도 귀여운 상상을 통해 우리가 집과 미래, 관계 속에 반복해서 겪는 기대와 불안, 허상을 가볍게 비튼다. 두 무용수는 상자를 쌓고 무너뜨리며 새집을 만드는 놀이를 반복하고, 협력과 분열을 거쳐 결국 집이 아닌 길을 선택한다. 무거운 메시지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서와 여운을 남기고자 한다.

by2s | 한성대학교

무용

#휘파람 #달콤한 속삭임 #육망 #2월 8일 오후 4시

'by2s'라는 팀명은 'Be yourself'를 두 배로 확장한다는 의미로, 움직임을 통해 본래의 나를 발현하고자 한다.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4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무용 고유의 춤선과 호흡을 유지하면서도 움직임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한다. 〈Whisper〉는 세익스피어의 '액배스'에서 영감을 얻어, 사소한 속삭임이 인간의 욕망을 깨우고 자아를 뒤흔드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처럼 다가온 달콤한 유혹이 점차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이끄는 순간에 집중한다. 무대 위에서 반복되는 흔들림과 저항의 움직임은 유혹에 잠식되지 않으려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보여 준다. 집요한 속삭임에 맞서 스스로를 불들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혼란의 끝에서 결국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을 관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cAthaRsiS: LAB | 단국대학교

무용

#현대_살풀이 #생애의_황폐한_파편 #고해성사 #2월 8일 오후 4시

시대에 대한 대중의 감정적 해방과 쾌락의 극대화를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단체로, 인간의 감각과 직관에 따른 순수한 상태 변화를 연구하고 이를 분출해내기를 지향하는 일종의 '실험실'이다. 논제에 주목해 대중이 스스로 사용하며 개인이 이념적 정화와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유롭지만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시대에서 느끼는 해방감을 향유하는 작품이다. 〈방랑자들〉은 초연 작업 당시에 번아웃을 겪던 안무가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한 작품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있어 방향을 잃는 순간에 자신을 얼마나 작게 인식하는지, 또한 그런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지에 집중했다. 이 작품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절대적인 '신'을 모시는 무당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한다. 〈방랑자들〉은 현시대에서 안무가와 같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 모든 현대인에게 보내는 축원이다.

김승욱 | 한양대학교

무용

#세탁소 #느낌 #치유 #2월 8일 오후 4시

감정과 오브제를 통해 움직임을 탐구하는 안무가의 작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무용수다. 신체를 감정의 매개이자 사유의 공간으로 바라보며, 오브제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안무로 풀어낸다. 〈세탁소〉는 지워지지 않은 진실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현대 사회는 감정의 피로와 관계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 '정화', '라셋', '초기화'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잊으려 하고 씻어내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감정과 아픔의 얼룩을 마주하게 된다. 세탁소라는 일상적 공간을 무대로 차용해 관객은 살아오며 경험한 감정의 순환을 지우려 하고, 잠시 사라진 듯하지만 다시 떠오르는 그 흔들림을 마주하게 된다. 작품은 감정과 아픔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 흔적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민정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

#신과의 대화 #통로 #간지 #2월 7일 오후 4시

민정원은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이 몸에 남기는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무용수다. 무용을 기술의 결과가 아닌 시간과 태도가 축적돼 드러나는 예술로 인식하며, 반복과 성실함을 통해 자신만의 신체 언어를 구축해왔다. 지속적인 훈련과 탐구의 과정에서 형성된 몸의 감각을 바탕으로, 고유한 움직임의 결을 무대 위에 드러내고자 한다. 〈Lips for a response〉는 자신의 소망을 신격화된 대상에게 예배하는 의식을 치르며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기도다. 기도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주며 염원이 이뤄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통로다. 작품은 기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길'의 개념을 따라 세 개의 소망 사이에서 교차하며,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존재하려 하는가를 따라가는 여정이다.

Piece Atelier | 동덕여자대학교

무용

#조각 #연결 #고유성 #2월 8일 오후 4시

각자의 고유한 몸과 진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현대무용 창작 팀이다. 분리된 존재로서의 몸이 움직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맥박과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울림,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전체'의 형성을 무대 위에 드러내며, 개인의 불완전함이 모여 하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에 주목한다. 〈Puzzle: 불완전의 완성〉에서 무대 위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조각이지만, 수많은 연결점 속에서 서로에게 스며들고 움직임을 주고받으며 점차 하나의 맥박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더 큰 울림과 변화가 피어난다. 미세한 진동이 모여 집단의 숨결을 만드는 과정,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이어지는 순간들 그 자체가 작품이자 울림이 된다. 정해진 틀 속에서 각자의 존재가 가진 고유한 의미와 이들의 연결로 형성되는 집단의 에너지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슴슴 | 한국체육대학교

무용

#연결 #반복 #오류 #2월 8일 오후 4시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몸의 감각과 감정의 흐름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을 탐구하는 무용수이자 창작자다. 기술의 완성도보다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유와 진정성에 관심을 두고, 일상의 경험과 내면의 흔들림을 신체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즉흥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 연구와 구조적인 안무 작업을 병행하며, 개인의 몸이 가진 서사와 동시대적 감각을 무대 위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끊어진 회로〉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절된 현대인의 관계와 감각을 신체로 표현한 작품이다. 끊임없이 흐르던 움직임은 어느 순간 멈추고, 신호가 어긋난 몸들은 반복과 오류를 겪는다. 연결과 단절, 흐름과 정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어지려는 몸들의 시도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파편들을 탐구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은 하나의 회로처럼 작동하지만, 끊어지고 흔들리며 다시 연결을 시도한다.

살사 프로젝트 | 서울예술대학교

무용

#불안 #청년 #일 #2월 7일 오후 4시

'살사SALSA(살아 있는 사람)' 프로젝트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로, 사물과 신체의 관계를 탐구하며 무대를 구성한다.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내적 서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지향하며, 동시대적 감각을 바탕으로 신체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특유의 질감, 습관, 반응을 움직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동시대적 신체 표현의 새로운 언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내면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고, 감정을 입체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자 한다. 〈Break!〉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불안과 내적 갈등을 풀어낸 작품이다. 쉽게 깨질 수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알'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상징하는 핵심 오브제로 등장한다. 불안을 극복 대상이 아닌 성장 과정으로 바라보며, 불안과 함께 나아가는 청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손승하 | 서울예술대학교

무용

#종이배 #밥은 먹었어? #씻김 #2월 7일 오후 4시

한국적 신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움직임을 확장하는 안무가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신체적 움직임과 그 관계를 창작 전반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으며 탐구하고 있다. 2025년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에 안무작이 선정됐고, 올해 6월 예정된 프랑스 파리 초청 등의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 언어를 담은 안무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지(紙)거리〉는 종이를 작품의 오브제로 삼아 전통 씻김굿의 정서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미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연출하며 종이를 다루는 조심스러움과 남겨진 주름과 접힘이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음을 활용했다. 이 작품은 삶과 그 너머의 경계인 죽음의 문턱을 위태롭게 넘는 과정을 한 장의 종이로 무대 위에 올린다. 뒤집히고 접혀 삶의 공간이 줄어들고 '결국'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전통 소재에 기반하되 절제된 유희성과 시각적 실험으로 무겁지 않게, 진정성 있는 무대를 전한다.

숨 프로젝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

#생명력 #감각적인 #활성화되는_몸 #2월 7일 오후 4시

몸의 진실한 반응을 중심에 두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흐름과 감각을 기반으로 살아 있는 움직임을 탐구하는 실험적 무용 단체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관계나 형식에 기대기보다, 몸이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며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태도는 감각이 발생하는 순간과 그 시간성을 중시하는 숨 프로젝트의 작업 원칙을 이룬다. <SENSIVITA>는 'sense'(감각)와 'vital'(생명력)의 합성어로, '감각적으로 살아 있음을 드러내는 생명력'을 뜻한다. 몸을 통해 인간은 본래 감각적 상태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생명체임을 드러내고 강조한다. 무용수는 형태나 완성된 동작이 아닌, 감각이 파생시키는 즉흥적이고 살아 있는 움직임을 통해 존재의 유동성을 드러낸다. 결국 '살아 있다'는 동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이며, 자신의 감각과 존재 상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영주 | 한양대학교

무용

#그냥go #앞으로 #어딘지_몰라도 #2월 8일 오후 4시

무대를 하나의 질문 공간으로 여기는 안무가이자 창작자다. 관객의 머릿속에 조심스레 던져진 작은 물음표가 공연을 보면서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움직임과 장면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찾는 그는 이러한 질문이 형식적인 장치가 아닌 움직임의 윤곽을 잡는 기준이 되며, 의미 없는 움직임은 관객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다. <GO 고 GO>는 확신은 없지만 잘하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있다. 이 길이 맞는지, 끝이 있는지 알 수 없어도 몸은 계속 버릇처럼 움직이고 있다.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 우리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오늘도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다.

조예원 | 경희대학교

무용

#센터 #레드카펫 #내장의_움직임 #2월 7일 오후 4시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조예원은 무용이 신체 표현을 넘어 음악·미술·공간·기술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 예술임을 깊이 인식하는 경험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조예원은 무용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예술 언어를 융합하는 예술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창작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감각과 무용적 관점을 실험하고 이후 음악 작업과 움직임 연구, 서사 중심의 신체 탐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Center Issue>는 왜 인간은 세상의 중심으로 모이고 싶어 하는지, 나 또한 도망치고 싶어하면서도 왜 종래엔 세상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의문을 가져온 지난 시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을 찾으며 살아간다. 그것은 몸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정상성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주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일 수도 있다. 중심은 밖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작품에 담았다.

프로젝트 Kwon | 한양대학교

무용

#굴린다#구른다#어떻게_삶아갈_것인가 #2월 7일 오후 4시

최근 '움직임으로 어떻게 삶을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Kwon이 탐구하는 주요 영역은 움직임을 통한 삶의 시각화와 존재를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테크닉이나 완성된 형태보다는 몸이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선택하는지를 주목하며, 미세한 움직임과 리듬의 변화까지도 무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굴린다 구른다>는 '굴리는 것'과 '구르는 것'이라는 대비되는 움직임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를 탐구한다. 통제하지 못한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몸(굴리는 몸)과, 그 흐름 속에서도 매 순간 선택하며 방향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몸(구르는 몸) 사이의 긴장을 움직임으로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작품은 흐름과 선택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삶의 리듬,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예성 | 국민대학교

무용

#청소 #결합 #고독 #2월 8일 오후 4시

이예성은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움직임, 오브제, 무대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다. 반복되는 일상, 노동, 신체의 결합과 회복 같은 주제를 신체적 감각과 연기적 요소로 풀어내며, 일상의 오브제를 움직임을 확장하는데 사용한다. <CLEANER>는 반복되는 청소 행위를 통해 노동의 리듬과 신체의 균열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규칙적인 노동 속에서 발생하는 어긋남과 결합은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으로 전환되고, 무대 위 신체는 효율을 요구받는 존재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변화한다. 이 작품은 청소부의 움직임, 빗자루와의 관계, 반복 속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동작을 통해 결합을 새로운 리듬,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김건우 · 양다원 | 국민대학교

무용

#깨어있는_걷기 #불규칙 #설렘 #2월 8일 오후 4시

현대무용의 심오함보다는 섬세함을, 발레의 고전적이기보다는 구조적 아름다움을 중심에 두어 좀 더 즐겁고 살아 있는 작품을 추구하는 팀이다.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조화를 찾아내며 흥미롭고 깊이 있는 창작 과정을 이뤄가고 있다. <Walking Awake>는 진행하는 현재를 두 눈으로 마주하고, 흐름에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우리는 보고 있지만, 동시에 보지 못한다. 문득 매일 걷던 길이 어떤 색으로 메꿔져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늘 보던 글자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던 순간. 우리는 어느덧 당연해져 잊어버린 것이 많다. 작품은 익숙한 리듬이 무심코 반복되던 틈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을 만든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방식을 낯설게 느끼게 하며, '순간', '현재', '지금'에 몸을 담아보는 순간을 유도한다.

황창대 | 계명대학교

무용

#들쭉날쭉한 #불완전함 #고유한_재능 #2월 7일 오후 4시

안무가 황창대와 무용수 권규리·안지연이 팀을 이뤄 하나의 무대를 그린다. 함께 만드는 작업을 통해 정형화된 틀에 갇히기보다 장르의 벽을 과감히 깨트리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갓 졸업한 신진 예술가로서 규정된 형식보다 지금 이 순간의 솔직한 움직임에 집중하며,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언어를 무대에서 펼쳐내고자 한다. <들쭉날쭉한 축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완벽해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인간의 본질적인 모순과 불완전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인간은 세 가지 요소인 정신·신체·생명으로 나뉜다. 분리된 세 요소가 하나로 온전하게 모일 때 비로소 인간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요소가 과하거나 들쭉날쭉한 불균형이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특징이다. <들쭉날쭉한 축면>은 그러한 완벽하지 않음이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한 재능이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WAU | 수원대학교

전통

#청화명연 #오방색 #진짜청춘 #2월 7일 오후 3시 30분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청년 예술가들의 흔들림에서 출발한 팀이다. 기대와 설렘보다 먼저 다가오는 불확실함과 두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묻는 말을 통해 WAU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추거나 극복의 서사로 포장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의 감정을 소리로 드러낸다. <청화명연 靑和明演: 청춘의 조화로 밝게 펼쳐내다>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청년 예술가들의 마음을 세 개의 장면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첫 번째 '집장'은 전통 징장가를 재해석한 곡으로, 선배가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로 나아가는 첫 문턱의 긴장과 책임감을 상징한다. 두 번째 '비나리'는 징장을 지나며 괴로운 마음이 들지만, 부디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낸 곡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날을 축원하는 청년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다. 마지막 '염불'에서는 서도민요 특유의 잔잔한 리듬감을 통해 디짐을 전한다.

고제 가야금병창 연구회 비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

#온고자신 #지지자_라이브 #공연문의_DM #2월 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22학번 성악 전공 3명이 모인 프로젝트 단체이다. ‘비고’는 전승이 끊긴 고제를 복원함으로써 옛것이 아닌 오늘날의 음악이 되게 한다[非古]는 의미와 낮은 것과 높은 것, 세상을 아우르는 음악을 하겠다[卑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탐구하고, 이를 복원하고 학습해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이어져오고 있다. <온고자신: 옛 소리를 티우다>는 고제 가야금병창과 남성 가야금병창의 명인 정달영의 음악을 복원해 연주함으로써 오늘날 남성 연주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조학진 명창의 ‘인당수 뱃고사~수궁 풍류’ 대목을 복원해 더듬과 표현을 익히고 청자의 해석을 더한다. 두 번째 정달영 명인의 심청가 중 ‘봄이가고~못가겄소’에 연주의 해석을 담아 표현했다. 마지막 동초제 춘향기는 정정렬제 춘향기를 바탕으로 짠 동초 김연수 명창의 소리를 가야금병창으로 재해석했다.

비나리즘 | 단국대학교

전통

#꿈 #wish #빛과어둠 #2월 6일 오후 7시 30분

비나리즘은 축원과 기원을 담은 노래인 ‘비나리’와 철학이나 사조를 뜻하는 ‘-이즘ism’을 결합,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자는 뜻을 담은 가야금 양상불 팀이다. 가야금의 맑은 울림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비나리즘은 무엇보다 스스로 즐겁게 연주하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관객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별 헤는 밤>은 무대 위 가야금 줄의 떨림이 관객의 마음과 맞닿아 별이 폭발하는 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작품은 네 개의 주제와 곡으로 나뉘지며, 출입을 앞둔 청년 예술가의 불안과 혼란, 그럼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갈길을 밝혀주는 ‘별’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아득한 시간을 건너 폭발하여 반짝이는 별이 ‘지금의 나’에게 다가와 영원한 희망을 주듯, 공연이 끝난 뒤의 여운이 관객의 꿈을 비추며 오래도록 반짝이기를 바란다.

프로젝트 잇구 | 중앙대학교

전통

#흑백세상 #광대 #기억 #2월 7일 오후 3시 30분

프로젝트 잇구는 ‘하루아침에 예술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학생 단체다. ‘구구’는 구전설수로 전해지는 판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이자, 둥근 원을 뜻하는 ‘구球’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프로젝트 잇구는 둥근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원이 사람 사이의 모나지 않은 관계와 존중을 상징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은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2125년 대한민국, 다섯 명의 광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미극장을 세우지만 끝내 국가 유일 예술단체로 편입돼 공연을 이어간다. 어느 날 한 광대가 사라지며 남은 네 명은 지난 기억을 되짚게 되는데, 사라진 광대를 찾으며 잊고 있던 초심, 울고 웃는 감정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안에서 예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다.



예술가의 진심
이수지 작가의 머무는 것들
예술인 아카이브
강인송
박영성
페이퍼로그
예술교육센터용산팀 유민성
서울 로컬 리포트
장우윤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외는 지금
터너상, 사상 첫 장애예술가 수상자 선정



이수지 작가의

머무는 것들

네덜란드 체류 시절 제작한 작업을 그곳에 남겨둔 채 돌아온 이수지는 도구와 결과, 전시의 관계를 둘러싼 질문을 오랫동안 불들어왔다. 작가의 작업은 완성보다 그에 이르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초점을 둔다.

2025년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활동하셨어요. 오픈스튜디오 때 보니 금천예술공장이 유독 주민에게 열려 있는 것 같더군요. 금천예술공장의 성격은 또렷해요. 공장지대 한가운데 있는 레지던시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미술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여겨졌어요. 심지어 이름도 '공장'이잖아요?(웃음) 시간이 지나며 내부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세심하게 갖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작가들의 제작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한 곳이란 점이 눈에 띄었죠. 저는 나무를 주로 다루는데, 필요한 장비와 조건이 정확히 마련돼 있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스튜디오도 기억에 남아요. 동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찾았거든요. 미술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공간과 작업을 존중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금천예술공장을 오래 지켜온 소장님이 직접 가꾼 과일을 작가들 방 앞에 두고 나누던 일상적인 장면들이 조용한 환대로 남았습니다.

금천예술공장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떤 작업을 진행했나요?

2025년은 작업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오랜 시간 '사적인 형식'이나 '내용의 부재'를 중심으로 작업 해왔지만, 이들이 제 안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바깥으로도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 사적인 형식과 내용의 부재를 다뤄보자 했어요. 처음으로 퍼포먼스와 이를 기록하는 영상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형식이라 낯설었지만, 3층의 넓은 갤러리 공간과 여러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는 미리 짜인 장면을 실행하기보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과 신체가 만나 어떤 형식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보는 일종의 수행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가'보다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어떻게'는 미리 설정된 절차나 명확한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에게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등장하는 개인적인 선택과 반응이 중요합니다. 만족이나 망설임, 실수와 수정 등이 물리적 행위로 이어지고, 이들의 축적이 작업 형식으로 남기를 바라며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도구를 다루는 감각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 컴퓨터나 기계를 도구로 대하지 못하고 되레 제가 도구에 길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로 인해 무언가 구체화하기까지의 순간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과정을 사적인 영역으



로 전환하고, 이를 재차 사유하는 방식. 저에게 '어떻게 만드는가'는 바로 전환과 사유의 흐름을 자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화한 작업이 〈글자 쓰는 기계〉2016~18 같습니다. 보도니 Bodoni 서체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규칙을 세우고, 그에 맞춘 장치를 제작한 작업이었어요.

서체는 본디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된 글자입니다. 글자는 '쓸 수 있음'과 '읽을 수 있음'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쓴다'는 행위는 '그린다'거나 '제도한다'는 것과 달라서 본능에 기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서체는 형태와 두께, 곡선이 고정돼 있어 아주 작은 변화에도 다른 서체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체는 읽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쓸 수 없는' 글자라고 느꼈어요. 〈글자 쓰는 기계〉는 '서체를 어떻게 다시 물리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보도니 서체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해요. 수학적으로 계산된 구조인 데다가 세리프 serif(글자 획의 끝이 돌출된 형태) 서체임에도 각 획의 형태가 일정해 해체와 복제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보도니 서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해체해 26가지 형태소로 정리하고, 여기에 규칙과 코드를 부여해 26개의 맵을 구성했는데요. 코드에 따라 기계를 수동으로 움직이면 중앙에 있는 펜이 마치 스스로 글자를 쓰는 것처럼

↑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 2025,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시간 42분

← 2025년 WWNN에서 연 개인전 〈내용없음〉 전시 전경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서체 해체와 재해석은 물론, 종이를 제작하고 실을 합사하는 도구도 선보였어요. 이를 겪으며 마주한 감각은 무엇이었나요?

〈100줄의 실을 위한 합사기〉2022를 예로 들면, 실을 합사하기 위해 바퀴를 돌리는 행위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다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물리적 한계일 때도 있고, 스스로 생겨난 의식이나 의심이 표면에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 상태를 감지하고, 조정하거나 그대로 두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사적인 형식'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반복의 시간이 축적되면서 제가 어떤 경로 위에 서 있는지, 다음으로 무엇을 고민하게 될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뒤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끝없는 연속처럼 다가오네요. 근원을 찾아가는, 흡사해체하는 인상도 들고요. 작가님에게 전시란 작업에 온점을 찍는 일이 아닐 듯해요.

전시는 언제나 고민의 대상이에요.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닌 까닭이죠. 〈글자 쓰는 기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의 작업이 하나의 세계관을 추가하고 확

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전시의 형태로 보인다 해도 어디까지나 과정의 일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감각은 전시 형식에도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도구만을 보여주는《네 가지 도구》(2023, 김희수 아트센터), 결과물과 실패의 과정을 함께 보여준《글리치필릭》(2024, 수림큐브), 도구 없이 결과물과 생각의 단편을 펼쳐 보인《내용 없음》(2025, WWNN)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 쓰는 기계〉와 〈종이 만드는 기계〉는《Goodbye to the Art》(2023, 네덜란드 LimestoneBooks)에서 폐기되고 나무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온점을 찍은 것일까요?

‘온점을 찍지 않으려는 시도’가 적합한 표현이에요. OCI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Liminal Phase: 4장과 5장 사이》2022 이후 작업 안에서 ‘도구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계속 고민했어요. 전시실 안에서 도구가 결과물과 비슷한 무게로 보이거나, 때로는 하나의 작품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모순처럼 다가왔거든요. 제 작업실에서도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도구 위에 짧은 노트를 적기도 하고, 때가 묻거나 커피가 흘러 흔적이 남기도 하죠. 그런데 전시장에 놓이는 순간, 그런 사용감이 지워진 채 작품처럼 격상되는 태도를 저 스스로 취해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을 되뇌다보니 네덜란드에 남겨둔 두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초기 작품처럼 느껴져 쉽게 버리지도, 공간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옮기지도 못한 채 남겨두었던 두 도구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거의 2년이나 걸렸어요. 해체된 나무들은 책장으로 부활했습니다. 도구들이 작품처럼 보이는 게 불편했던 건 그 장면이 작업에 온점을 찍는 행위처럼 보여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도구의 폐기’는 도구의 시간이 완성된 작품의 시간과는 다르게 흔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며, 전시에 놓인 것들이 여전히 과정 중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상실감이 컸나요, 해방감이 컸나요?

해방감이요! 비로소 도구를 도구로 직면하게 됐거든요. 이후 도구를 전시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감이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리치필릭》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전시로 이어진 듯 했어요.



『네 가지 도구』를 잇는 전시예요. 『네 가지 도구』에서 공개한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이 초기 구성이었어요. 하지만 도구를 만드는 일과, 그것으로 결과물에 이르는 일 사이에 예상보다 길고 반복되는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시 직전 정육면체 하나와 원통 하나를 겨우 완성할 수 있었죠. 작업이 자연될수록 실패의 부산물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애초의 기획은 무산됐고, 전시 자체가 예기치 못한 오류의 연속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글리치glitch’(예기치 못한 전류 증가로 발생하는 작은 결함)를 내세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완벽함에도 달하겠다는 자기 고백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글리치는 시스템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결과물의 밀도를 바꾸는 미세한 차이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해도 어김없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어긋남 같은 것들이죠. 반면 버그는 작업이 실제로 중단되는 대목을 가리킵니다. 전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 배치했는데요. 실패를 미화하기보다는 어떤 오류가 작업을 앞으로 밀어주고, 어디에서 멈춰서는지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완벽함은 기계가 찍어내듯 균질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미세한 차이와 통제 불가능한 무작위성까지 포함하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글자 쓰는 기계〉를 통해 글자를 써낼 때 긴 시간을 들여도 동일한 형태의 글자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반복할수록 차이는 더 분명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글리치는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닌, 작업이 도달할 수 있는 밀도를 성립하는 조건처럼 남습니다. 제 작업의 사적인 형식 역시 글리치와 버그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형성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을 형식으로,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로만 바라보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대상을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고 해도 시선에는 어떤 방향성과 태도가 스며들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형식은 철학적 순수성에 도달하려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정과 선택이 축적되며 끝내 지워지지 않는 개인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즉 ‘사적인’이라는 전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곧 ‘이수지’라는 주체가 개입된 형식인 셈이지요. 저는 이것이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리고, 반복이라는 조건을 부여해 반응을 포착합니다. 앞서 언급한 영상 작업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2025에도 같은 태도를 적용했어요. 저의 작업 태도에서

파생한 세 캐릭터, 통제적인 ‘룰러Ruler’, 자유로운 ‘씽커Thinker’, 오류를 상징하는 ‘글리치Glitch’를 부여받은 퍼포머들에게 헌책 더미만 주고, ‘텍스트를 읽지 말고 물질로 다뤄달라’는 최소한의 지침만 제시했습니다. 사전 구성 없이 이어진 수행 속에서 각자의 방식—책을 찢거나, 세우거나, 밟거나, 눕거나 등—이 형태로 나타났고, 저는 그 형식이 따로 설명을 요구하는 틀이 아니라 작업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만 읽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관람객은 작가의 ‘과정’을 알아채야 작업에 접근할 수 있는 듯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과정을 설명하기보다 과정과 결과가 동일선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전시를 읽는 ‘힌트’ 가사리진다고 할까요?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풀리지 않는 과제예요. 축적된 시간이 너무 길어 한 번에 전달하기 어렵고, 무엇부터 말해야 하는지도 쉽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미술이 이해보다 감상에 맞닿은 매체라고 봅니다. 관객이 작품 앞에 머무르거나, 전작을 찾아보거나, 텍스트를 참고하는 등의 의지를 가지고 다가와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죠. 감상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가 도달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태도예요. 그럼에도 작업이 완전히 단한 채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까지가 적절한 설명인지를 가늠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없음』에서는 도구 대신 비평가를 작업실로 여러 차례 초대해 관찰하게 했고, 이를 건조하게 기록한 문장을 결과물 옆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관객이 직접 과정을 보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결과로 시선이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수지의 창작 예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동안 과정을 먼저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자연스럽게 결과 쪽으로 시선이 이동한 시기였어요. 형식이 정말로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장치와 규칙을 구상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기에 관심도 과정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전자는 통제적인 룰러의 태도에 달아 있고, 후자는 유연한 씽커의 시간에 기울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리적 형식을 다루는 작업과, 그로부터 파생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는 작업을 병행하고자 해요.

간 인 송

문학/아동문학

@all_my_fairytales

2026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동화를 읽고 쓰는 강인송입니다. 온갖 마음들을 데려다가 동화 속 어린이들과 나누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머리카락 길이 귀밑 3센티미터의 학칙을 고수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던 즈음이었습니다. 죽어도 머리칼은 자르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들의 미운 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싫었어요. 당시에는 수업이 오전 7시 40분에 시작이었는데, 가만 보니 6시 40분까지 가면 교문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찍 학교에 가는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빈 교실에서 혼자 소설과 동화를 읽었습니다. 소설만 읽다가, 동화로 넘어가게 됐어요. 동화가 저를 학교에서부터 제일 먼 곳으로 데려다줬거든요. 그때 읽은 동화들은 머리칼조차 마음대로 기르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에 놓인 저를 정확히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동화를 꿈꾸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독자분들이 저더러 “작가님!” 하고 부르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자연스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스스로가 예술가라고 자각하게 돼요. 도서관이나 초등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면 제 이야기책을 읽은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솔직히 재미없었거나, 아예 읽지 않았더라도 모든 어린이가 그 순간만큼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만난 것처럼 저를 환대해줍니다. 제 이야기책을 어떻게 만났든, 어린이들이 제 이름을 비명지르며 부를 때 저는 ‘이런 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게 됐나보다’ 하고 느낍니다. 어두운 작업실에 홀로 앉아 밝은 것들을 모아다가 ‘동화’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 애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보답받는 기분이 듭니다. 읽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를 ‘예술가’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간에는 『오늘도 수줍은 차마니』(2021), 『너에게 넘어가』(2024)처럼 다양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동화 단편집을 발표해왔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도 사랑을 담은 단편 동화집·장편 동화집·유년 동화집 등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전의 작품에서는 사랑 그다음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사랑을 낭만적으로만 바라본 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 넌더리 나는 사랑도 써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방식의 지긋지긋한 사랑 이야기요.



월 좀 궁금해하는 마음이 항상 영감이 되어줍니다. 저는 ‘~하는 아이가 있다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가령 장소가 수영장이라면, 수영장에 가기 싫은 아이가 있다면? 그런데 수영장에는 왜 왔을까? 당장 도망치지 않고 아이가 수영장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 강사님? 마음에 드는 수영복을 입어서? 사실은 발톱이 너무 긴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물속에 숨는 걸까? 이런 식으로 질문에 질문을 데려가요. 당연히 그 모든 질문에 어린이가 있고요.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고 맷습니다.

최근 이필원 작가님의 『안녕, 피아노 차차』(2025)라는 저학년 동화를 읽었는데요. 그저 읽었을 뿐인데 희한하게 피아노 건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책 『여름이온다』(2021)를 읽으며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듣던 때도 함께 떠올랐고요. 들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멜로디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두 작품을 나란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동문학이라는 장르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동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두껍고 탄탄한 동화를 엮어 여기저기 쉽게 닿는 곳에 손수건처럼 걸어두면 누구라도 한 번쯤 열어보지 않겠어요? 그걸로 눈물을 닦기도 하고, 땀을 닦기도 하고, 두고두고 생각나 집에 가져가기도 하겠죠. 오래 들춰보지 않더라도 그다음의 누군가가 또 필요로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즐겁게 작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화가 뒷주머니 손수건처럼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동화집 『오늘도 수줍은 차마니』(2021, 문학과지성사)와 『너에게 넘어가』(2024, 창비) 표지

박영성

b.1992
무용/현대무용
@anecdoteinstillness
2025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서울댄스스테이지 트리플 빌'

저는 '몸을 통해 인간 삶의 무게를 바라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현대무용가 박영성입니다. 살기 위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의 에너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행 중 마주한 '생존을 위한 몸의 방식들'은 제 예술 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곧 '무용수로 살아남기'라는 저만의 신념으로 이어졌고,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작고도 집요한 행동 이제 작업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무용을 통해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외부 작업과 공연에 참여하며 무용수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무용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본다면 내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만의 스타일이 담긴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제가 본격적으로 창작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안무 노트를 만들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생각과 이미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외부 작업을 병행하면서 지원사업과 다양한 공모를 통해 제 작품을 조금씩 시도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예술가'라는 호칭은 조금 어색하고 낯간지럽게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작업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감각에 더 가깝다고 느낍니다. 다만, 종종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들은 있습니다. 관객이 제 작품을 보고 공감하거나 느낌을 이야기해줬을 때, 시간을 들여 만든 작업이 누군가에게 가닿는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용은 비언어의 장르이기에, 신체를 통해 안무가의 의도와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섬세한 성격 탓에 '이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보내는 예민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대화가 아닌 신체를 통해 관객과 무용수, 그리고 작품이 하나로 관통되는 찰나를 마주



했을 때, 비로소 예술가로서 시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감각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며 더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After that, One day) 2024, (After that, One day (Omnibus)) 2025, <불편한 휴식> 2025, <떨어질 수 없는 거리> 2025 등 작품을 통해 '삶의 지속과 불안', '인간 관계의 거리', '생산성과 휴식의 경계' 같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인 주제를 꾸준히 탐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 작품으로 <불편한 휴식>을 꼽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프리랜서 무용수로 살아가며 오랫동안 '쉴 수 없음'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개인적인 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불규칙한 일상과 불안한 내일,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속에서 휴식은 어느 순간 '멈춤'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생산성 강박'을 주제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작품은 이러한 경험을 가장 개인적인 일화로 풀어낸 솔로 작품입니다. 과장된 장치보다 제한된 환경에서 드러나는 몸의 반응에 집중하는 방식은 현재 제가 지향하는 작업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풍경과 감정에서 영감받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장면들, 그 순간 떠오르는 감정이 작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체감한 감정과 장면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가 가진 본질에 집중하며 작업을 확장합니다. 이후에는 그 본질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변화와 리듬, 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최소한의 연출 방식을 탐구합니다. 저에게 영감은 완성된 아이디어보다 몸을 통해 계속 질문하고 검증해야 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창작 과정은 늘 제 삶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돼 무용이라는 언어로 천천히 변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새롭고 인상 깊게 본 예술 작품은 없지만, 몇 년째 다시 찾아보며 꾸준히 떠올리는 영화는 있습니다. 바로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 2017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만들어진 존재인 복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조작된 기억 속에서 자신이 혹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느

겼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지닌 배경과 정서, 그리고 차가운 세계 속에도 미묘하게 남아 있는 온기를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작품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또한 이 영화와 어딘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복제 인간일지라도 인간일 수 있다는 헛되면서도 따뜻한 희망을 끝내 놓지 않는 태도가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고, 작업을 이어가는 제게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 <불편한 휴식>의 한 장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제 작품으로 해외 투어를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언어와 인종, 문화가 다른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 삶을 공유하는 일은 제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무용은 언어가 아닌 신체로 감정과 이야기를 전하는 장르이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삶'에 대한 감각을 함께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 작품을 통해 관객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사람의 삶에 담긴 불안과 지속, 그리고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감정을 천천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문화권의 관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작업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술교육센터용산팀 유민성 다정한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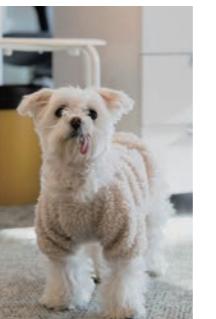
다정함을 남기는 조력자, 유민성 대리는 오래전부터 선물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선물을 받고 좋아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고르는 일, 그런 선물을 통해 상대에게 마음을 남기는 일을 좋아했거든요. 일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다정함이 남았다면 그건 제가 애정을 전하는 방식이 통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다정함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풀어나갈 개선 의지, 관점이 다르더라도 맞춰보고자 하는 마음,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풀고 조력할 힘 같은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다정함을 남기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어요.

문화예술에 닿게 된 계기는 영문학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어요. 주 전공은 영어학과 영문학이었는데, 부전공으로 공부한 인류학이 무척 매력적이었죠.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호기심이 있는 편인데, 그러한 관점을 길러주는 학문이라 더 끌렸어요. 실제로 그런 성향이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 일할 수 있는 현재의 직무까지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미술 전시를 관람하거나 예술 관련 공간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전시 기획사에 다니던 때 우연히 지하철 플랫폼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바람난 미술' 광고를 보고 서울문화재단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입사 후 작가들과 전시를 만드는 일을 일 년간 했고, 이곳에서 더 일해보고 싶다는 결심이 섰죠. 재단 정규직은 순환 보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약직으로 지원했고요. 그만큼 하고 싶던 일이 명확하던 때였죠.

공공예술과 함께한 초기 2015년부터 2년간 '바람난 미술'을 담당했어요. 시각예술 작가 55명과 함께 전시를 만드는 일이었죠. 2017년부터 또 2년간은 사회적 예술 공모 지원사업인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맡아 진행했어요. 이 시기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지역과 사람, 공간에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아가 참여자와 함께 하는 예술가·기획자 등 여러 사람과 느슨한 연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팬데믹, 모든 것이 새롭던 이후 예술지원팀을 거쳐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25개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력하는 'N개의 서

울', 코로나 긴급지원사업인 '19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됐는데요. '190시간'처럼 기획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른 기관에 없던 사례였죠. 기획을 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창작자와 달리 기획자에 대한 정확한 역할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지원사업은 성과를 남겨야 하는데, 이 사업은 기획자의 기획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라 성과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그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글로 받는 것으로 정하고 몇몇 분들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저 역시 기획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당시 연을 맺은 분들과 아직도 연락하며 지낸답니다.



"다정한 아트라운지'를 기획하며 특히 힘이 되준 두 권의 책이에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다정함 저는 다정함이 관심과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호기심이요. 그리고 무언가 연결하고자 의지가 다정함을 만들고 그 다정함이 내 마음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은 그러한 다정함의 문을 두드려주는 존재일 거예요. '이건 좀 낯선데', '이건 어려울 거야' 하는 마음의 문턱에서 다정함이 문을 두드려 주는 거죠. 그런 다정함을 가득 채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1층 아트라운지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곳이 당신에게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문화행정기관 다양한 분야, 관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고,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더 넓게 보고자 하는 열린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행정을 하다보면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야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야가 좁고 막혀 있다면 답이 없으니까요.

1퍼센트의 힘 장우윤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은평구는 서울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북한산을 등지고 넓게 펼쳐 있는 곳이 은평구다. 종로구와 연접해 도심에 가까우나 예술 환경은 열악하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공공문화시설이 거의 전부로,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 시설이나 예술 자원이 밀집한 지역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공공성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외곽 도시, 그러나 은평누리축제를 비롯해 주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단단해 자기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화성은 강하지만 예술 기반이 취약한 지역, 이런 지역에선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걸까? 법학과를 나와 정치학을 공부한 장우윤은 2023년 8월부터 은평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회 비서관을 거쳐 은평구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그는 일핏 보면 정치인으로 보이지만, 세종문화회관 이사를 거쳐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학을 공부한 문화예술경영 전문인력이다. 그는 2년 6개월간 이곳을 경영하며 은평의 문화적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2년 반동안 대표이사로 지난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해서 직원들과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하루하루 숨 가쁘게 지냈더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동시에 그 시간 동안 일에 대한 고민과 책임이 쌓여 2년이 아니라 몇 년은 더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처음 은평문화재단에 왔을 때, 재단이 설립된 지 6년째였지만 조직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산은 점점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한 일이 조직 안정화였어요. 전 직원을 면담했죠. 두 달 정도 직원 개

개인과 면담하면서 재단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축제와 하반기에 몰린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의회 업무 보고와 2026년도 사업 예산도 챙기면서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일복이 많으시네요.

그런가봐요. 하지만 취임 초기 직원들과 함께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가시적인 사업 성과도 내고, 은평문화재단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며 조직 문화를 바꿨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 추진했어요. 다양한 외부 자원을 유치하고 대외 협력을 확대하면서 주민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드릴 수 있었던 점이 뜻깊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청과 주민들로부터 재단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게 보람이죠.

무엇보다 조직 안정화에 가장 힘쓰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조직 안정화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전 조직이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어요. 문화예술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인사·노무·회계·시설 등 문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하나하나 재정비하며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했지요. 특히 문화재단의 변화와 성장을 고민했습니다. '제2의 창립'이라는 인식 아래 설립 이후 최초로 조직 개편을 단행해 문화예술교육팀과 정책홍보팀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와 정책 역량 강화, 구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정말 큰 사업과 행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어떤 사업과 행사를 치렀나요?

문화예술교육팀과 지역문화팀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개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꿈의 무용단',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중장기 국비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에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교육 대상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학교·가정·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성과가 컸는데요. 그 결과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하고 사업을 만드셨네요.

은평구는 서울시 안에서도 고령화율이 평균보다 높아요. 이후 청년층이 유입되고 고령층 단독 세대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장애 인구 비율도 높고, 문화가정 비율도 높아서 은평구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약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본다면 은평 지역의 문화는 복지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돌봄이나 연결, 안전이 중요해진 지금, 문화예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기존의 단순 감상 방식에서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이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지역 돌봄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앞으로 은평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은평에 공간이 많거든요.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사람을 잇는 작업을 시작하며,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생활권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애주기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령대마다 장르나 주제의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면, 36개월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문화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마지막으로는 지역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체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잖아요.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 기관, 그리고 행정기관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가족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방서나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우리 은평구에 문화재단이 있어 참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기관과 협력하는 놀라운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

표님이 봤을 때 그 모델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짜리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바뀌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재단이 성장하고 지역 주민이 성장하는 것, 그게 문화재단의 역할이자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사업이나 문예회관 운영 쪽은 어떤가요?

재단 사무실이 있는 은평문화예술회관은 30년 된 건물이에요. 그동안 구청의 각종 기념행사나 대관 위주로 운영됐고요. 의외로 700석 가까운 공연장이 자치구에 많지 않습니다.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객석 의자를 비롯해 시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지하1층 공연연습실과 전시실·문화강좌실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공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외 협력과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를 들 수 있는데요. 2024년 처음 협력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고, 2025년에는 축제 개막식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며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다수의 해외 문화원 및 대사관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어요. 스페인문화원을 시작으로 형가리·체코·네덜·인도문화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이들이 은평누리축제에 참여해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축제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올해도 공연과 전시 사업을 협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네트워크와 협력으로 채우셨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저

희처럼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더 질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양질의 문화예술을 지역에 보급하는 한편, 더욱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지역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간 규모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 공연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용 전문 센터로 운영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과 협력하는 한편, 또 작년에는 크로스오버 서바이벌 방송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한 ‘라비던스’의 콘서트를 통해 신규 관객층을 유입하기도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세계무용축제를 통해 5개국 8개팀의 공연을 유치해 국제 수준의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의 완성도와 기획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예술도시 은평의 브랜드를 높여볼 생각입니다.

대표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문화예술의 가치를 향유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재단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은평에서의 문화예술이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언어가 되는 것, 재단은 그 과정을 잘 설계하고 조율하며 주민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동안 회원도 많이 늘고, 소셜미디어도 많이 활성화됐지요. 앞으로 은평구 주민 1퍼센트가 재단 회원이 되고, 후원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재단이 안정적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겠지요.

지역의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전략이 있다. 예술가와 협력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활력 있게 만드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주민과 관계하며 일상의 문화와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전략도 있다. 은평은 자원이 부족한 곳이다. 이곳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장우윤 대표가 찾은 답은 지역 내·외 기관과 협력하는 것, 이를 통해 예술의 질을 높여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를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표가 얘기하듯 ‘예술이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언어가 되는’ 은평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퍼센트의 은평 주민이 재단의 회원이 되고, 예술의 후원자가 되길, 그래서 강한 은평구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은평의 문화, 은평문화재단의 미래를 응원한다.



터너상, 사상 첫 장애예술가 수상자 선정

2025년은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지난 12월 그를 기리는 터너상은 인상적인 행보를 남겼다. 터너상 사상 최초로 장애인 작가, 네나 칼루Nnena Kalu, b.1966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터너상은 영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상으로, 수상자와 후보들은 동시대 영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칼루의 수상은 더 상징적이다.

네나 칼루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의사소통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그의 작품은 색색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감아 만든 조각과 소용돌이무늬 드로잉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단은 칼루의 “재료, 색채, 움직임에 대한 독창적인 활용 능력”과 “공간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칼루는 글래스고의 나이지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 후반 런던의 주간 보호 센터에서 미술 작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학습장애 예술가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 액션스페이스ActionSpace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다.

2004년부터 꾸준히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상업 갤러리와 공공 미술관 개인전으로 반경을 넓히고 있다.

↓ 2025 터너상 시상식에
오른 네나 칼루의 모습
©James Speakman/PA Media
Assig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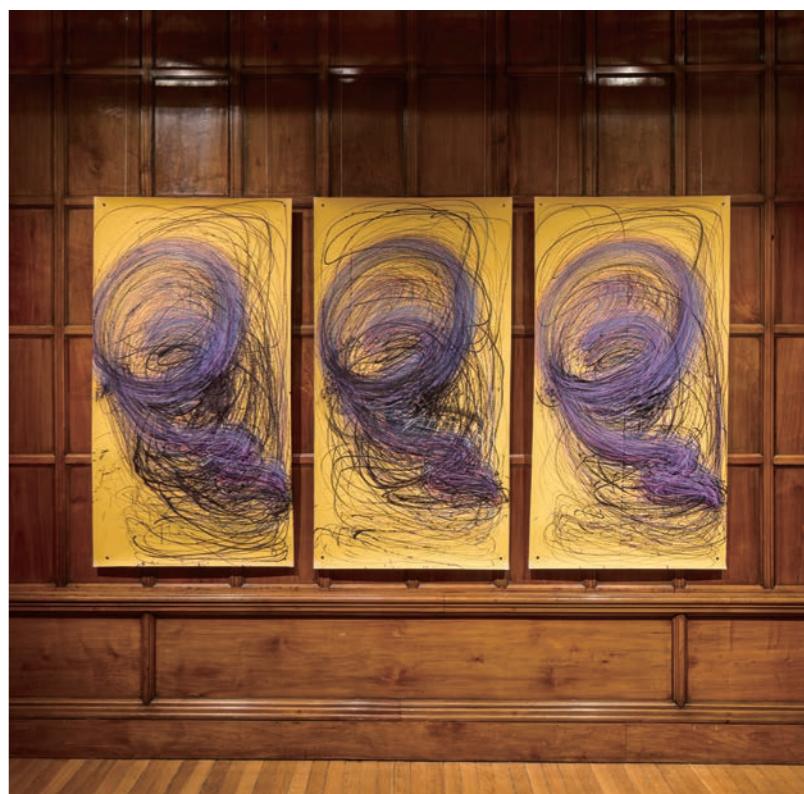
한편 칼루의 수상을 두고 포용성이 작품 평가를 앞선 것은 아닌지, 또 작품 제작 중 도움이 개입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작가의 저자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다양한 배경에 따른 새로운 포용

터너상의 타임라인과 후보 작가를 잠시 살펴보자. 터너상은 매년 4~5월 네 명의 후보 작가를 지명하고 10월부터 전시를 열어 작품을 공개한 뒤, 12월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후보는 네나 칼루를 포함해 모하메드 사미Mohammed Sami·르네 마티치Rene Matić·제이디 차Zadie Xa(자유미)가 선정됐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후보들은 각자의 민족적 뿌리, 정체성, 디아스포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작업한다. 모하메드 사미는 이라크 출생 후 스웨덴으로 이민한 작가로, 전쟁과 기억, 폭력과 트라우마의 흔적을 회화에 담는다. 런던 기반의 사진·영상·설치 예술가 르네 마티치는 흑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혼혈이자 퀴어 여성으로서 정체성과 가족, 문화적 경계를 사진과 설치 작업으로 선보인다. 제이디 차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캐나다 출신 예술가다. 한국의 샤머니즘과 자연, 전통적 색채와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을 만든다. 대부분 여성인 무당의 존재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번 수상을 통해 지금껏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던 장애라는 소수성을 예술계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점이 인상적이다. ‘가디언’지는 칼루 작품의 독창성에 호평을 보내며 “칼루의 예술은 우리가 어떤 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다른 작가들과 비교 또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학습장애 작가의 독특한 표현성은 일반인의 정의하는 기법의 틀로 분류될 수 없다.

다만 칼루가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만큼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창작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의도를 조력자가 ‘해석’하는 순간, 저자가 분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마련이다. 많은 장애예술이 조력자나 지원 기관과 분리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특히 자신의 작업을 언어로 설명하고 전시의 텍스트와 인터뷰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개념 번역·전시 중재·해석을 타인에 담당할 수밖에 없다. 개인과 공동 작업의 구분이 붕괴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붕괴가 보이지 않게 작동해온 기준과 달리, 장애예술에서는 그 구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터너상 측은 작품의 주요 제작 행위는 칼루에게 있으며 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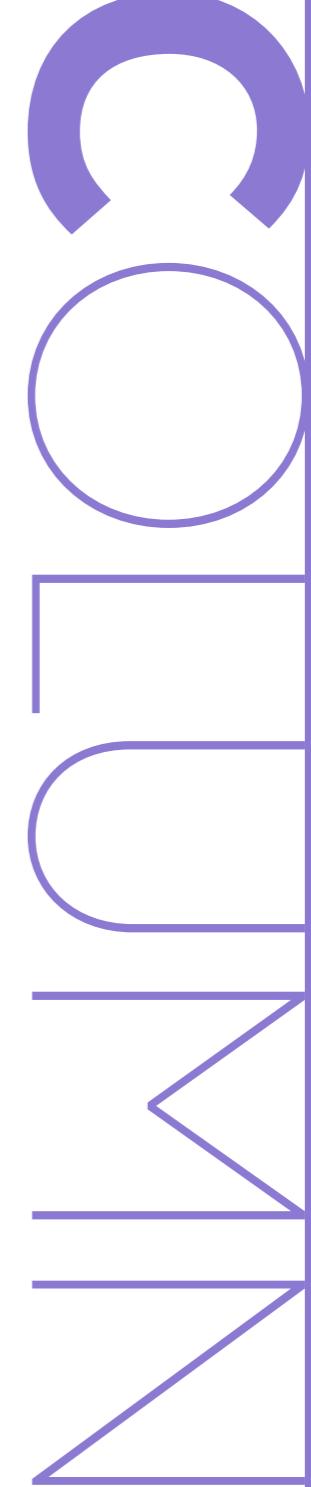
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 설명한다. 지난해 칼루가

참여한 리버풀 워커 갤러리Walker Art Gallery의 전시《대화Nnena Kalu: Conversations》의 큐레이터 자레드 달스Jared Das가 묘사한 칼루의 작업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칼루의 작업 방식은 아주 매혹적이다. 특정 시점에 어떤 색을 고를지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을 종이 위에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장애예술가의 자격’ 문제하기보다 터너상을 비롯한 공공 수상 제도가 장애예술가의 개인 저자성과 제도적 협업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나 이미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단체 수상을 허용해온 터너상이니 말이다. 상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조건 아래 경쟁해야 하지만, 장애예술은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불리하고 규칙을 조정하면 특혜 논란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을 택해도 명쾌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물론 이는 장애예술가뿐 아니라 현대미술계 전반에 해당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의 작업을 다수의 스튜디오 상주 인력이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번 칼루의 수상과 논란은 결국 선정의 옳고 그름보다 장애예술을 개인상 체계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성찰하게 했다.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 네나 칼루,《Drawing 72》, 2022, 2025 터너상 전시 설치 전경 ©David Levene

그날, 누가 무엇을 쓰러뜨렸는가.



스크린 너머의 세상
세개의 꽃꽃이
동시대적 고전 읽기
'동시대적 고전 읽기'의 함정
현대음악에 주파수를 맞추면
거대한 노이즈 속에서
춤, 이면의 몸짓
취미-발레, 무용해서 유용한

세 개의 꽃꽃이

이다혜 작가·씨네21 기자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²⁰²⁵가 아이러니를 통해 짐 자무시Jim Jarmusch의 말년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감각과 기억의 통합이다. 신비가 겉힌 자리에 소박한 경이가 자리잡는다. 빛과 소리가 움직이는 찰나의 도입부를 지나 아버지가 거실을 연출하고 있다. ‘적당한’ 물건을 여기저기 흐트러트리는 그의 행동이 자신에게는 작위적이지만 자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지러운’ 환경을 연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버지’ 챕터의 말미에나 깨닫게 된다. ‘아버지’, ‘어머니’, ‘남매’의 세 장으로 나뉜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는 다중 시점의 영화이자 하나의 시점을 제공한다. 가족이라는 역할극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그려내면서 말이다.

세 챕터에는 모두 자동차 안에서의 대화가 들어 있다. 자동차 안에서의 대화를 자주 인상적으로 영화에 담아내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공중에 붕뜬 듯 말랑말랑한 특이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에릭 로메르 영화의 대사는 말하는 인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배우까지도 드러낼 수 있으며, 대사가 많아도 충분히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의 대화를 읽는 방법에 대한 단서이기도 하다. 가족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가 자주 등장한다. 말의 ‘내용’은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한다. 대신, 내용도 없이 이어지는 말이 상징하는 것, 침묵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방 안의 코끼리다. (억지로) 말하지 않고도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한 상대라면 친구나 연인, 배우자가 될 만하다는 통념에 기대어 말하자면, 많은

경우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친구나 연인, 배우자로 삼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쌓이면 서로 익숙한 역할극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없이 반복되고 수정되며 현재에 이른 이 역할극은 거짓말임을 알지만 믿는 척하는 경청과 상대의 거짓을 간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타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다 안다고 확신한다. 나와 닮았지만 나 같지는 않은 문제적 타자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른다. 일흔이 넘은 짐 자무시는 함께 작업한 이력이 짧지 않아 관객도 그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배우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한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이별이다.

‘아버지’ 챕터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집을 찾은 딸과 아들과 짧은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 챕터에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을 찾은 두 딸과 티타임을 갖는다. ‘남매’ 챕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쌍둥이 남매는 부모님의 옛집이 다른 세입자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다.

사건이 없는 이 영화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사물과 언술은 마치 빵 부스러기처럼 보는 사람을 향해 손짓한다. 물·차 혹은 커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롤렉스 시계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관용구.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표시하는 상징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해 끼워 넣다니. 이러한 해석되지 않지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거의 모든 대답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빵가루들은 짐 자무시가 시어詩語를 다루는 방식이다. 짐 자무시는 자신에게(분석보다) 직관이 중요하다고 인터뷰에서 밀한 적이 있다. 이미지 사이의 병치나 연결, 혹은 관객이 거기서 만들어내는 의미는 직관적이거나 무작위적인데, 이것은 좋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연결된다.

〈패터슨〉에서 패터슨이 성냥갑을 두고 시를 썼다면 영화를 만드는 짐 자무시는 성냥갑을 그 자리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시를 상상



하게 만든다.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서는 그런 면이 극대화 된다. 짐 자무시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를 ‘세 개의 꽃꽃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카메라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며, 특정 캐릭터나 그들의 세계관에 중심을 두지 않는 세계를 정교하게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다.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색이 입혀진 빛의 움직임과 특정한 감정을 촉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유하는 사운드, 암호 같은 관용어구, 사물들과 사람들. 〈패터슨〉에서 자꾸 출몰하는 쌍둥이들처럼 (그렇다!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도 쌍둥이가 등장한다!) 반복해 보이는 대상 중에는 스케이트보더가 있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 도시에 공히 등장하고, 이들이 나올 때면 시간은 잠깐 이상한 속도로 투닝되며, 갑자기 화면에 미끄러져 들어온 뒤 인사도 없이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간다. 남부 캘리포니아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빈 수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디어에

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발상이 J.G. 벨러드적이라고, SF 같다고 짐 자무시는 말한 적이 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비순응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라고.

게으른 통념—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포용적으로 된다. 경험이 쌓일수록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관상만으로 평가하는데 무슨 수로 포용적으로 될까. 책이든 영화든 사람이든, 좋아할지 알기 위해 사계절을 인내해보는 노력을 해가 갈수록 점점 하지 않게 된다. 인내심은 청춘의 자산이다. 말년의 짐 자무시는 짧아진 인내심으로 〈데드 돈 다이〉²⁰¹⁹를 만들었다. 지식과 계몽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적이 된 데 분노하며. 현재에 존재하지만 현재에서 벗어난 감각으로 만든 영화였다. 그다음에 온 것은,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골라 넣은 보석함인 것 같다. 지금 히 찰나에 머물기 때문에 영속성을 획득한 순간들이 과거가 되어 손짓한다.

‘동시대적 고전 읽기’의 함정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연일 유명인의 몰락이 전해지는 시절이었다. “늘 몰락하는 자들에게 매료되곤 했다”(신형철,『몰락의 에티카』, 2008)던 어떤 문학 평론가의 고백은 이미 지난 세대의 것인지, 언제나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사람들이 곤두박질했다는 소식을 뒤따르는 것은—매료는커녕—당혹과 실망을 넘어 거의 냉소와 비아냥이었던 듯하다. 그마저도 개별적인 맥락은 완전히 소거된 채, 한 단어의 신조어(쉬이 예상할 수 있듯이 나는 ‘지팔지꾼’을 생각하고 있으나, 애써 입밖으로는 내지 않으려고 한다)에 잠시 담겼다가 이내 휘발되곤 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결론을 유보하는 윤리적 질문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도덕적 심판의 언어가 지배적인 시대에도 몰락의 서사가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나 주인공이 맞이하는 파국이 그리스비극의 ‘운명’과 같이 자기 통제 밖에서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인공 자신에게서 비롯하는—것으로 여겨지는—현대의 비극이 그럴 수 있을까? 왕이 사라진 시대, ‘보통 사람 common man’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발생하는 파국에 주목한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작품들이 그럴 수 있을까? 당대에도, “만약 실제로 사무실에 찾아와 일자리를 구했거나 사람을 붙잡고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했다면 관객 누구라도 그를 사무실에서 내쫓았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평을 받기도 했다는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1949의 주인공, 윌리 로먼 같은 이가 말이다.

밀러의 동시대 극작가, 테너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는 ‘희곡

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The Timeless World of a Pla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먼이 “하등 염려해줄 이유가 없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평이 현실에서는 “약간의 진실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희곡이 무엇이나에 대해선 충격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반증한다고. 희곡은 그 무엇보다 “시간을 붙잡아 두는 일”이며, 그 “시간의 세계 밖”에서 우리는 현실에서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질주하며 존엄과 의미를 야탈하는 “인생의 파괴자”, 시간에 의해 황폐해지지 않은 극장 안에서만 큼은, 여유 있게 제각기 다른 사정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요약될 수 없는 타자의 삶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극단 블루컴퍼니 〈다네이아들〉 © 웅한테크먼 블루컴퍼니

윌리 로먼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모두가 나의 아들All My Sons’1947 의 조 켈러 또한 밀러가 희곡이라는 “시간의 세계 밖”으로 초대한 ‘흠결 많은 인간’이다. 조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소개된다. 비록 둘째 아들 래리는 3년째 실종 상태이지만, 큰아들 크리스는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믿었던 크리스가 래리의 전 연인인 애니를 집에 초대했다고 한다. 청혼하기 위함이란데, 문제는 크리스와 애니가 결혼한다는 건 래리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는 점. 틀림없이 아내 케이트가 무너질 것이다. 허나 결혼을 반대하면, 크리스는 떠나겠다고 한다. 오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키워온 사업을 버리고 말이다. 요컨대, 조가 굳건한 자기 자리라고 믿어온 ‘성공한 사업가이자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위치가 치명적으로 위태로워진 것이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있었다면 자신까지 잃지는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조의 실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조는 전쟁 당시 결함 있는 전투기 부품을 납품해 21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 책임을 동업자에게 뒤집어씌워 투옥되게 만든 후, 자신은 무죄 석방되어 사업을 키우고 부를 축적한 부도덕한 인물. 밝혀지는 진실에 크리스는 절규하지만, 조는 당당하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자신은 멋떳하다는 것이다.

“그 전쟁에서 공짜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조는 항변한다. “내가 감옥에 간다면 이 빌어먹을 나라 절반이 감옥에 갇혀야 할 것”이라며 자신을 변호한다. 정말 이 뻔뻔한 사내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 무렵, ‘전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전쟁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조가 정직하고 빈틈없

이 결함 없는 부품만을 선별해서 선적했다고 하더라도, 피부색이나 언어만 다를 뿐 생을 달리하는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생겨났을 것이다. 전쟁은 이처럼 누군가는 결코 ‘내 아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는 자기 확신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전쟁의 실체가 조의 도덕적 타협과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 온 것일 터다.

조는 래리가 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수치심에 자살을 결심하기 전 애니에게 남긴 편지를 뒤늦게 읽고서야 “그들 모두가 내 아들이었던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퇴장해 생을 끝낸다. 전쟁 시기, 이기적 이어서 살아남았고, 전쟁 후에도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누리며 살 아온 ‘전쟁 수혜자’, 조는 그렇게 몰락하며 전쟁의 실체를 폭로한다. 전장에 있던 군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안락한 삶과 타협하며 가족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 매달렸던 당대 미국 관객 모두가 당사자였던, 바로 그 ‘전쟁’을 말이다. “늘 몰락하는 자들에게 매료”되었다는 바로 그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말하듯 조는 “스스로 몰락하면서 이 세계의 완강한 일각을 더불어 침몰”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나의 아들’의 핵심은 이처럼 ‘전쟁’에 있기에, 작품의 배경을 ‘핼러윈 전야’로 변경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참사들을 환기한 극단 백수광부 〈다 내 아이들〉(연출 이성열,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선돌극장)은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읽혔다. 시의성을 강조한 프로덕션의 선택이 희곡에 불들려 있던 시간을 풀어 이 시대의 얼굴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부정한 삶이 그저 ‘너’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로 자식의 삶을 죄스럽게 하는 가부장의 얼굴들이, 죽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진실 규명을 동시에 봉쇄하던 피의자, 또는 가해자의 얼굴들이 조의 얼굴과 겹친 것이다. 그런 프로덕션의 전략 속에서 조의 몰락은 이 시대의 흠결 많은 사람들의 몰락처럼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지도, 새로운 상상을 제안하지도 않는 듯했다. ‘전쟁’이라는 조건이 약화되자, 조가 윤리적

질문의 발의자라기보다는 도덕적 심판의 대상으로 읽히게 된 것이다.
이 시대의 ‘전쟁’은 무엇인가? 사회의 어떤 면모가 오늘날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협과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 주고 있는가? ‘모두가 나의 아들’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다시 쓰인다면 답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고전을 경유해 이 시대를 적학하게 짚어내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더 많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들에게는 기꺼이 무책임해지는 선택도 감수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는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작 ‘아이들The Children’2016의 은퇴한 핵물리학자처럼, 낡디낡은 통념을 거둬내고 우리 시대를 위한 윤리적 질문을 추동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야말로 크리스가 바라 마지않던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아는” 즉,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로 안내하는 서사라고 믿는다.

거대한 노이즈 속에서

신예슬 음악평론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 새해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들은 음악이 그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이야기. 물론 낭설이지만, 왜 이런 말은 그토록 오래 기억되는 걸까? 이 말을 신경 쓰면서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덧 7년 차다. 처음 몇 년은 새해의 첫 곡을 대단히 공들여 선곡했지만, 최근 몇 년은 단 하나의 음악을 고르기보다는 올해의 음악적

운명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갈지를 좀 더 생각해보고 있다. 아무렴 일년의 운명을 첫 곡 단 하나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년의 산뜻한 기운은 어느새 일상에 스며들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올해는 어느 쪽으로 갈지 부단히 생각해보곤 한다. 어떤 음악을 들을까. 어떤 현장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 볼까. 그간 현대음악의 고전을 파고든 해도, 즉흥음악가들의 뒤풍 무니를 쫓아다닌 해도 있었고, 다시 한번 서양 전통의 고전을 사랑하려 애쓴 때도, 여러 협업 무대를 찾아다니던 때도 있었다. 그런 날들을 지나, 올해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써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음악이라고 부를 필요 없지만 몹시 멋진 소리들이다. 그 소리에 제목이나 이름이 없다면 더욱더 좋겠다. 음악 아닌 소리, 이름 없는 소리… 이렇게 모호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소리들에 관심이 생긴 건 최근 가까이에서 경험한 공연 두 편 때문이다.

먼저 11월 1일 밤, 강원도 평창에서는 <N4-i>라는 공연이 열렸다. 한국천문연구원 KVN 서울대 평창전파천문대 앞을 무대로 삼은 이 공연은 ‘미래음악: 클래식랩 융합 레지던시’의 두 번째 시즌 쇼케이스로, 전자음악가 노디, 디자이너 오혜진, 작곡가 이중현, 생활 연주자 한지수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러 맥락이 있지만 내가 이해하기에 이 공연은 무엇보다도 미지를 관측하는 일에 대한 현시였다. 전파망원경은 거대한 안테나를 하늘로 향한 채 온갖 주파수 대역을 관측하며 전파를 수신한다. 까마득한 높이와 크기, 그 지름이 어느 정도인지마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눈과 귀인 어떤 것. 거기에서는 당장 ‘정보’라 부르기 어려운, 노이즈에 가까운 데이터가 천문학적인 양으로 수집된다.

아티스트들이 공연의 구조로 삼은 것은 바로 그 전파망원경의 관측 시퀀스였다. 그들은 정돈된 음악 대신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와 같은 노이즈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그 안에서 어떤 미약한 신호를 찾아끄집어내곤 했다. 때론 보편의 음악이 들려왔지만, 이 공연의 상당 시간을 차지한 것이라 내게 대단히 아름답게 다가온 것은 음

악이 아닌 작은 신호음 같은 소리,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며 무언가를 찾는 소리, 요소를 하나하나 변별할 수 없는 덩어리와 같은 소리들이었다. 작고도 거대한 노이즈. 여기서 노이즈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발견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불분명한 음향 덩어리를 하나의 가능 세계로 받아들이며 귀를 활짝 열어두는 시간은 더없이 충만했다.



다음으로 12월 27일 늦은 오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는 ‘트랜지언츠’로 활동하는 조예본·윤지영의 공연이 있었다. 음악가, 그중에서도 전자음악가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이들은 최근 필드레코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게는 전자음악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자재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환상이 있다. 소리에 관해서라면 때로 전능해 보이기도 할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만들기의 영역으로 구현할 수 없는 세상 속 소리가 지닌 복합성을 섬세히 ‘듣고’ 그곳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 한다. 그들의 작업은 특정 시공간에서 들려온 소리를 고스란히 녹음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여러 장소에서 채집해온 그 녹음을 공연 현장에서 새롭게 구성하며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트랜지언츠는 지난 공연에서 그 소리의 원래 맥락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듯 “모월 모일, 어디에서 녹음”이라는 말을 포함한 필드레코딩을 들려줬다. 그러나 공연에서 그것들은 여러 번 중첩되고, 광주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새 몽골 토크체치의 소리를 듣는 식으로 소리를 통해 여러 도시를 오가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공연이 형성해내는 상상의 시공간은, 실제의 여러 풍경이 뒤섞인 묘한 시공간이 됐다. 현실과 음악이 형성하는 시공간 그 사이 어딘가에 놓인 그 소리는 풍성하고도 정교한 노이즈에 가까워졌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 멋진 소리들은 보편의 필드레코딩이나 음악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한층 증강된 어떤 것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디의 어떤 소리인지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들려오는 것들을 공들여 들었다. 명확하던 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데려다놓는 그 과정은 나를 오히려 순수한 듣기의 상태에 진입하게 하는, 묘한 시간이었다. 잘 알려진, 이름 붙여진, 잘 설명되곤 하는 보편의 음악에서는 결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검증된 고전부터 마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 믿고 들을 수 있는 곡까지, 세상에는 정말로 또렷하고 멋진 음악이 많지만,

내가 올해의 운명을 걸어보고 싶은 쪽은 그 바깥으로 나아가보려 하는 미지의 소리들이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소리. 하나하나 변별하기 어려운 음향 덩어리. 음악이라 부르기엔 좀 아쉬운, 그보 다 크게 느껴지는 어떤 것. 이 소리들에 대해 당장 덧붙일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지만, 여기서 지금 내가 순수한 듣기의 기쁨을 누리고 발견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 불분명 한 소리 덩어리들이 올해의 운명을 어디로 테려갈지 내심 기대해 보게 된다.

취미-발레, 무용해서 유용한

김태희 무용평론가

취미 발레를 시작했다. 발레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여전히 춤을 글로 쓰는 사람으로서 ‘취미’가 맞느냐고 되묻겠지만, 진심이다. 예술을 취미로 즐기는 것과 업으로 삼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감각이니 말이다. 예술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나서야 온전히 즐겁게 춤추리라 마음을 먹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더 우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발레학원으로 이끌었다. 오랜만에 피아노음악을 듣는 것도, 박자에 맞춰 오밀조밀 조화롭게 팔다리를 움직여 스텝을 수행할 계획도 모두 즐거운 상상일 뿐이었다. 가장 먼저 부닥친 난제는, 연습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의 올록볼록한 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꺼이 하얀 연습실 한가운데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다. 왜곡 없이 거울이 투사해낸 나에게 적응하는 기간

을 견뎌내고서야 춤추는 즐거움을 맞이하고 있다.

10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양을 위한 발레 수업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발레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레란 어쩐지 좀 어렵고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그때만 해도 발레를 취미로 하는 어른 이란 조금은 독특하게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꾸준히 취미 발레 인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놀랍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선 발레용품 판매가 늘어나고, 아마추어만을 위한 콩쿠르가 열리거나 이들로 구성된 발레단이 고전발레 대표작을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공공 발레단에서는 공개 발레 클래스를 열기도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발레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유명인이 발레 연습실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그 열풍에 한몫하기도 한다. 발레를 즐기는 이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한다. 발레는 잔인할 만큼 너무나 예술적인 예술이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연습실에서의 과정은 그와 달리 잔잔하고도 무척이나 부단하게 흘러간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역 무용수의 자태는 활활하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될 수 없다. 태생부터 대다수가 그 조명을 받지 못하는 예술이다. 게다가 발레는 나의 몸을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불편한 모습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술한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쉽사리 발레를 취미로 삼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것도 이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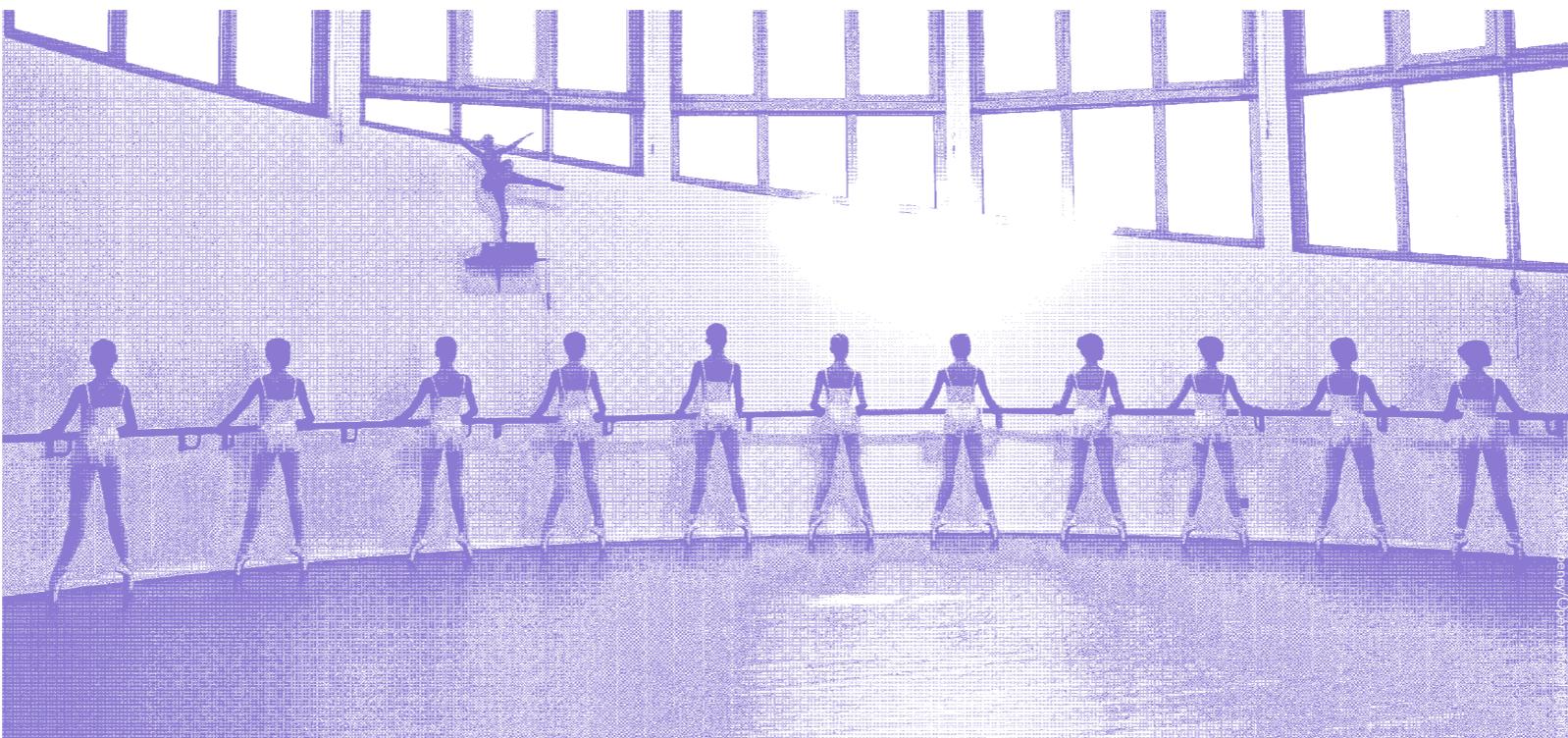
때문이었다.

마음먹고 찾은 학원의 ‘성인 중급반’에는 이미 오랫동안 수업을 함께해온 이들이 있었다. 다수가 저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업무를 해치운 뒤 고단함을 이기고 퇴근한, 평범한 이들이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이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연습복을 챙겨 입고, 쉬는 시간에는 인기 무용수가 출연하는 공연의 ‘피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며, 유명 해외 무용수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봤느냐며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쁘다.

취미를 넘어 이들의 예술에 대한 애정이 반갑고도 의아해서, 하면 할수록 어렵기만 한 발레를 왜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누군가는 반주음악으로 사용되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게 좋다고, 또 누군가는 예쁘고 아름다워서 좋다고 했다. 힘든데, 하다보니 더 좋아진다고 했다. 이해가 되는 듯 아닌 듯 아리송한 답변 가운데서도 확실한 건, 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예술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였다.

취미로 발레를 10년 넘게 해온, 그리고 춤에 관한 사유를 자신의 작품에 담기도 하는 박연준 시인은 발레와 시가 닮은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저는 시 창작 수업을 할 때 이 말을 자주 해요. 시詩란 ‘무대에 서기 위한 언어’라고요. 시는 의사소통을 위해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가는 단어처럼 곤두서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게 발레가 그렇거든요. 이 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와 발레 모두 ‘계속해서 아름다움에 복무하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발레는 백 년을 해도 잘 안되는, 너무 어려운 장르”라고 덧붙였다.

온몸을 섬세하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근육통이 한 차례 지나가고 연습복을 입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질 즈음 나름의 답이 떠올랐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되지 않는, 그러나 잘한다고 해서 딱히 내 삶이 바뀌지도 않는, 너무나 무용하기에 유용한 아름다움의 감각 이야기로 예술을 즐기는 이유인 것 같다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저는 63년이나 연극을 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의 재능을 힘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개막 현장에서, 박정자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 옮김.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MESSAGE**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있는 그대로의 청아한 기운이 넘치던 날. 뜨거운 열정만큼 현실이 더욱 냉정하게 느껴질 이들에게 꼭 무대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때론 눈을 돌리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김태희 디자인아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분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카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유종아트센터 종량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기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접수기간**예술기반지원**

2026.1.23.(금) ~ 2.6.(금) 18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2026.1.23.(금) ~ 2.11.(수) 17시

특성화지원**사업별 기간 별도 확인****신청방법****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L4
온라인 지원 신청**

<https://www.scas.kr>

